



요셉 스미스
그의 다섯 가지 지도자적 자질

성도의빛 9
1977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빛 9 1977

차 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테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앨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콩기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고문

고든 비 힝클리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매리온 디 헝스
제임스 에이 컬리모어
로버트 디 헤일즈

구세주의 방법대로 인도함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1
따르는 자의 본분	로저 메릴	5
사우니아투: 준비하는 장소	브라이언 케이 켈리	8
임무, 목표, 정원화		12
그들은 청소년이었습니다	루스 에이치 핑크	14
호우프만 할머니	엘리자베스 레안	17
공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마틴 제이 굿닉	20
가면을 쓴 너구리	머리 티 포링글	21
색칠하기		24
질의 응답		25
요셉 스미스-그의 다섯 가지 지도자적 자질	윌리엄 이 베렛	26
그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29
리하이의 발자취를 따라서	린 엠과 호프 에이 헐튼	30
오직 하나의 길	하 근수 서울 선교부장	38
교회 및 지역 소식		39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설명: 1977년 테트 헤닌거가 그린,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초상화.

동 권: 제146호, 제13권 제9호
동 록: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1977년 9월 1일 (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유진 피 톨
번 역: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77년
제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훌륭한 지도자나 교사(이 두 가지 용어가 함께 사용될 것입니다.)가 되기 위하여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고, 자신이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의 자녀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지도자가 인도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의 자녀임을 알고 이해하여야 하며, 이 지식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이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원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어디에서든지 도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을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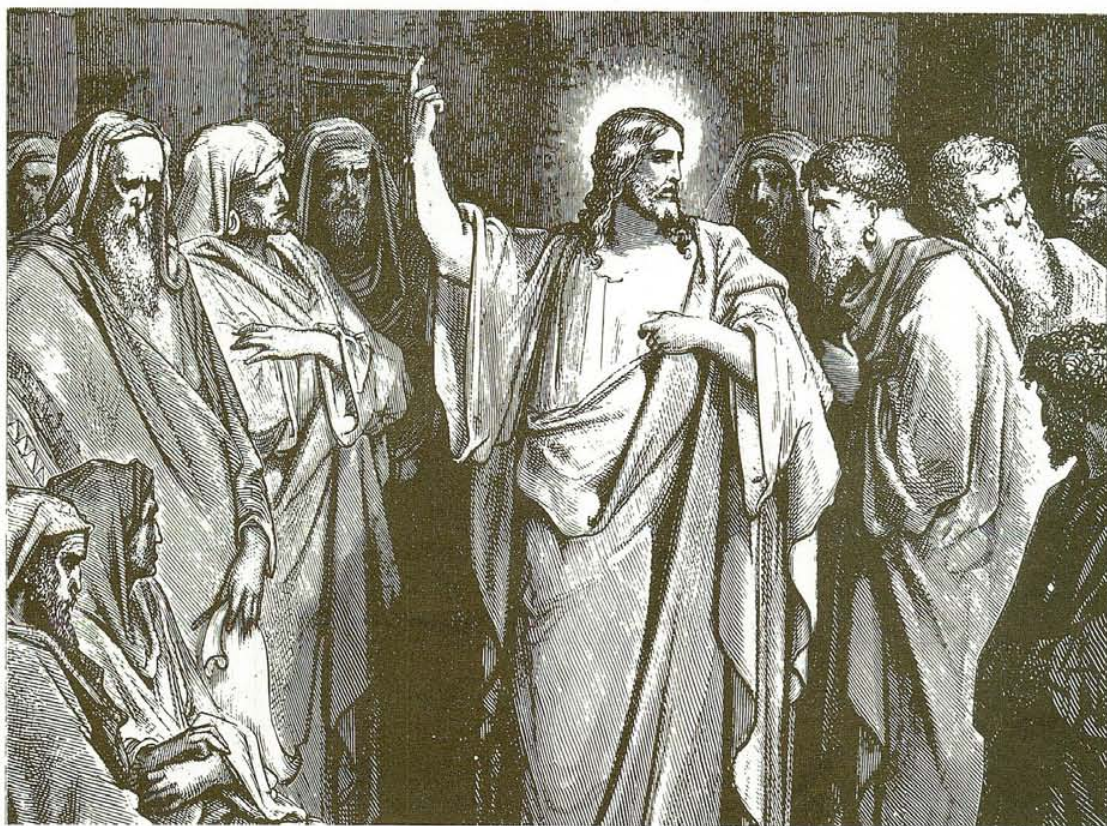
지도력에는 어느 정도의 용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누군가는 말하였습니다. 사실, 일선에서 앞장서서 나아가고, 폭도나 회중이나 얼굴도 분별할 수 없는 많은 무리와 대면하여 서야 하며, 단 한 명의 회의자가 주시하는 강한 시선과 맞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애 영향을 주는 지도자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지도자가 되느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겠느냐입니다.

각자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각자는 자신이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자각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세주의 방법대로 인도함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
(설교집 10:57)

“나를 따르라,” “내가 행한 것을 본 대로 행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모든 지도자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밝아야 할 첫번째 단계의 하나는 그리스도가 올바른 지도력을 보여 주신 표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경전은 그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경전은 하나님의 지도력에 대한 사례 연구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하려면, 경전을 상고하고 이해하여 그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파이가 말하였듯이 우리는 “경전의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고”(니일 19:23),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교성 84:44) 합니다.

니파이삼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저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니,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클 것임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저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그 소금이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던져져서 못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이니라.

“보라 너희로 나를 믿게 하며, 너희의 죄를 뉘우치고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내 앞에 이르게 하려 내가 내 아버지의 율법과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보라 계명이 너희 앞에 있고 율법이 이루어졌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니파이삼서 12:10~13, 19~20)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 하늘에서 아버지와 다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 지상에 오셨을 때, “내가 이 율법은 지키겠으나, 저 율법은 지키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계명대로 행하겠고, 저 계명대로 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셋세마네 동산에서의 무서운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어,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이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순종은 노예의 특성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자질의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시 사항에 따를 줄 모르기 때문에, 더우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를 줄 모르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인도하신 방법대로 인도하려면 우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랐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언급한 영원한 목표를 마음속에 간직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완전히 이를 수 있을 때까지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항상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요세프 스미스는 성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스리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설교집, 10:57)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간증과 이해로써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확신을 암시하는 것이 주님의 지도력의 정수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이해할 때 절차만을 훈련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유와 성장을 얻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또한 교사이며, 가르칠 때 사용되는 가장 훌륭한 도구의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사용하시던

도구인 모범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범으로 가르치는 것은 의도적으로 교훈으로써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사람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며, 훨씬 오랫동안 인상을 남겨 줍니다.

유능한 지도자나 교사가 되려면 자기가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고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사랑의 힘보다 더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자나 죄인이나 의로운 자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때때로 가장 사랑을 적게 받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을 인정하고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지도자에게는 인내와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항상 서둘러 행동하여서는 안되며 지나치게 반응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도자의 보조에 맞추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의 조급한 성미와 명랑하지 못한 정신 상태는 거의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용기마저도 앗아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

녀를 이끄는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모든 문제점을 단번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복음 교리, 156페이지)

지도력에서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위임입니다. 위임받은 사람은 관리인의 직분을 받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관리인의 직분을 지명하는 것은 지도자의 임무입니다. 각자는 지명받은 관리인의 직분을 받아들이고, 그가 배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임받은 사람은 책임뿐만 아니라 권능까지도 받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주전 470~399, 희랍의 철인)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대가 내게 맡긴 임무가 무엇이든지, 그 임무를 버리느니 보다는 차라리 일천 번을 죽을 것이다.”

지도자는 자신이 임무를 지명한 사람의 일을 해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리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자신의 능력껏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여러분은 뒤에 서서 그들에게 하는 방법만을 가르쳐 주십시오. 책임을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에 발전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결코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노고에 칭찬하고 격려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부름



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우두머리로 불리우거나 우두머리로 여겨지지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며, 구세주께서 가르친 것처럼 지도자는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 23:11)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큰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 23:12)

그랜트 대관장님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지명할 때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가 봉사하는 사람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캐나다 앨버타주의 정부 각료로서 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결정이 이 주를 위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국민을 위하여, 그리고 과의 직원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일까?” 또한 나는 다른 부서의 지도자, 특히 영향을 입게 되는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토론하여, 그들도 적어도 약간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며, 그후 주님께 나아가 인도를 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시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주님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리인이니, 주의 심부름하는 자라. 너희가 주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의 일이니라.”(교성 64:29)

그렇습니다. 지도자인 우리는 주의 심부름하는 자이며, 각 사람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침으로써 개인의 성장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각 사람이 스스로 불사불멸과 영생을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모범과 교훈으로써 행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노력을 돕고 지지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개인 자신이 내리게 하여 그가 받은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게 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의 직분에 관하여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께서 모든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 업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금이나 영원토록 요구하심이니라.”(교성 72:3)

지도자는 임무를 지명할 때,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책임 분야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임무를 수행할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해 주거나 최종 보고일을 설정해 줌으로써 임무 지명을 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행하여 임무를 달성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시 지도자에게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지도자는 이 보고서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교회 행정에서 업무 보고에 관한 기본되는 도구는 개인 접견입니다. 접견자와 피접견자와의 관계가 원만할 때, 접견은 두 사람 모두에게 보람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접견은 개인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상호간에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접견은 도움을 주고 받는 가장 이상적인 기회입니다.

교회에서의 경험 뿐만 아니라 정계와 사업계에서도 얻은 경험은 올바른 권능 위임, 확인, 보고 받기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위임할 때 우리는 다음의 일곱 가지 단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첫째,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조직은 위임된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위임을 할 때, 예수께서는 임무가 쉽다고 느껴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임무가 사람을 흥분시키고 도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셨습니다.

셋째, 예수께서는 임무를 위임받는 자들에게 임무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이해하게 해 주셨습니다.

넷째,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를 신뢰하신 것처럼, 위임받은 자를 완전히 신뢰하셨습니다.

다섯째, 예수께서는 그가 부름을 준 사람들에게 충성을 보이셨으며, 또한 그들로부터 충성도 기대하셨습니다.

여섯째, 예수께서는 책임을 위임받은 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며, 그들에게 많은 것을 줄 준비를 갖추고 계셨습니다.

일곱번째, 예수께서는 지도자는 책임을 위임받은 자들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진척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사랑의 정신으로 필요한 칭찬을 해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훌륭하게 되기 위하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만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다음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첫째, 구세주를 완전한 지도자의 표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교사와 섬기는 자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경전에서 올바른 원리를 상고하여야 합니다.

넷째, 기도으로써 인도를 간구하고, 응답에 귀를 기울이며, 실천해야 합니다.

다섯째, 각자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각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감사의 뜻을 올바르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여덟째, 가르치는 교훈과 실제의 행동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하나님의 예언자이신 교회 대관장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권고대로 실천하고 그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

따르는 자의 본분

로저 메릴

그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석양으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잔디밭용 흔들 의자에 앉아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선교부장님의 모습은 실루엣이 되어 윤곽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선교본부 뒷 현관에서 보이는 쪽 뺨은 시가지가 매우 아름다웠으나, 아직 진리에 굶주려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분으로서는 아름다운 풍경에도 시선을 돌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카든 장로가 두 주일 전에 해임됨과 동시에 선교부장에게는 새로운 보좌가 필요했습니다. 120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누구를 보좌로 택할까? 당시에 활동하고 있는 각 지구 지도자를 한 사람씩 차례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장로에게 그의 생각이 미치자, 그는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가장 많은 경험을 쌓은 자이고 또한 가장 좋은 자격도 갖추고 있지. 그가 책임지고 있는 지구는 모두 그의 말에 따르고 있어. 그런데 반면에 내게 문제를 주는 장본인이기도 하단 말야. 때때로 어떤 일을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는(곧잘 수행해 내기도 하는데) 자신이 한 바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든. 나를 항상 놀라게 만들어서 계획을 변경하게 만든 단 말이야. 내가 어떤 일을 하도록 부탁하면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해 놓고는, 그 일이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내게 확신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 번 그와 상의도 해보았지만 내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아니야. 안되겠어... 주님께 다른 사람을 추천해야 할 것 같아.”

재능이 많은 지도자가 따르는 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왜 자신의 의견이 항상 그의 지도자들로부터 저지당하기만 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신뢰를 얻는 능력과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미치는 영향



력이 지도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도 지도자 훈련 면에서 쉽게 간과되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경전에는 우리가 훌륭히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과 지도자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훌륭히 따르는 자의 성장이 이더서의 몇 개 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렛의 동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강인하고 신앙심이 깊고 힘센 야렛족의 지도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힘은 단지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개발되고 시련을 통하여 다져진 것이었습니다. 물론경 이더서 2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년이 거의 끝날

무렵 주가 다시 야렛의 동생에게로 오셔서 구름 가운데 서시어 무려 세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야렛의 동생을 꾸짖으시니, 이는 저가 주의 이름을 일컬어 간구하기를 잊었던 까닭이라.”

기도하기를 잊어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들던 그와, 이더서 3장 9절에서, “사람이 일찌기 너만큼 두터운 신앙으로 내 앞에 나아 온 일이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된 그는 너무도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렛의 동생의 생애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처럼 큰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사이의 몇몇 구절에 매우 중요하고 의미 깊은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렛의 동생의 위대한 성품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후 “전가 범한 행악을 회개하고 그와 함께 하

는 형제들을 위하여 주께 간구”(이더 2:15)하였다. 기록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의 책망에 대하여 겸손히 응답하는 것은 위대한 성품이 행할 수 있는 표적입니다.

이더는 주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따르겠다는 훌륭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후 주님께서 야렛의 동생에게 배를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지시에 철저히 따름으로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더 2:16~17 참조)

배 만드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나아가 어쩔할 바를 여쭙어 보았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내가 당신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당신께서 이르신 대로 배를 만들었으나,

“...보소서... 오 주님이시여 저희로 이 대해를 암흑 중에 건너게 하시겠습니까?”(이더 2:18, 22)

분명히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에는 이 질문에 대한 많은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모세서 1:39)이기 때문에 이 종의 신앙과 근면성을 더욱 발전시켜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해결되지 않은 일을 몇 가지 제언해 주고는 야렛의 동생에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너희가 깊은 바다에 빠져 삼켜질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이더 2:25)

야렛의 동생이 결정하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으며 어떠한 과정이 거쳐졌는지에 관하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에...”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셸람 산에 올라가서 16 개의 작은 돌을 큰 바위에서 끊어 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돌들을 손가락으로 만지신 것으로 보아, 분명히 이 창조적인 방법은 주님께 받아들여진 방법이었습니다. 이같은 놀라운 시현과 경험을 맞보는 중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사람이 일찌기 너만큼 두터운 신앙으로 내 앞에 나아 온 일이 없었으며”(이더 3: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렛의 동생이 훌륭히 따르는 자가 되는 데까지 밝은 단계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첫째로 그는 배를 지을 때 모범을 보인 것처럼, 지시를 받는 것은 무엇이나 기꺼이 행하여야 했습니다. 둘째, 그는 빛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자신이 발전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셋째, 그는 고안하고, 수행하고, 주님께 방법을 제언해야 한다는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상태까지 달한 사람은 스스로 전진하여 행하면서 정기적으로 보고할 준비가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이 방법은 의를 가져다 주는 일을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하라고 권고되어 있는 교리와 성약 58편에 묘사된 제자의 도리의 가치있는 유형입니다. 이것은 일곱 가지 창조적 단계가 이루어질 때마다 보고를 한 창조 사업에서 사용되었던 따르는 자의 본분의 단계입니다. 훌륭히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한 단계가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한다.
(이더 2:14)

보다 많은 인도를 구하고,
보다 열심히 봉사한다.
(이더 3:18)

제언하고, 그 제언이 승인되면
그대로 수행한다.
(이더 3:23, 25)

행하고 보고한다.
(교성 58:27; 교성 72:3)

여러분은 현재 따르는 자로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달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도자는 항상 여러분으로 하여금 명령받은 일을 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해야 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으로 눈을 돌려 더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언하였습니까? 혹은 여러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만큼 일을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였습니까?

이와 같은 단계는 복음에서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씩 차례대로 배워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와 같은 단계를 거꾸로 밟아 내려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도,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을 보이지 않았고, 지도자에게 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지도자의 신뢰를 얻은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따르는 자의 본분입니다. 지도자가 따르는 자에게 더 많이 자유를 허락하여 주기 위하여 지도자는 우선 따르는 자의 능력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선교사는 이러한 자질을 발전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도자에 대한 신뢰심을 갖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였으며,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암몬과 모사이야의 네 아들의 이야기가 이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마음을 돌이켜 왕위를 거절한 다음, 결국 그들은 “악하고 잔인한”레이맨인에게 복음을 선교하러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모사이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아들들이 그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을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이 같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였다는 내용이 엘마서 17장 2, 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히 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인지라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더욱 강하게 뭉쳐졌다.”

“그 뿐 아니라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느니라.”

모사이야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헤어진 후 암몬은 라모나 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왔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니파이인을 붙잡아 왕에게로 끌고 가는 것이 레이맨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왕이 원하는 대로 죽여 없애든지 인질로 잡아 두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저희들 땅에서 내어 쫓든지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전에 니파이인들이 레이맨인들에게 와서 그들을 개심시키고자 한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암몬이 왕 앞으로 끌려갔을 때, 그는 처음부터 가기가 왕과 그의 불쌍하고 잔악한 백성을 구하러 왔다고 말하거나 복음을 곧 전파하기 시작하지 않고 다만 그 땅에서 머무를 수 있느냐고 여쭙었습니다. “예, 오래도록, 아니 죽는 날까지 이 백성들과 이곳에서 살겠나이다.”(앨 17:23) 이것은 매우 뜻밖의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에 왕은 매우 기뻐하였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왕은 그에게 딸 하나를 주어 아내로 삼도록 제의하였습니다. 암몬은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그의 호의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게는 못하겠으니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앨 17:25) 그 지방의 관습에 따르면 전장의 패자가 종의 신분이 되는 때에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암몬은 종의 신분으로 이 강한 나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경전에는 그가 사흘 동안 왕의 종으로서 지내다가 시브스라는 샘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왕의 양떼를 훔으려는 자들 중 몇 명은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팔을 베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놀랐으며, 자신의 큰 공적에 대한 영광을 받으려 오지 않고 왕의 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왕은 더욱 놀랐습니다.

“라모나이 왕은 암몬이 왕의 말과 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암몬의 충실함에 더욱 놀라 이르기를, 일찌기 내 종들 중에 이처럼 충실한 종을 찾아보지 못했노라. 저가 종들에게 분부한 것을 모두 기억하여 행하는도다.”(앨마서 18:10)

암몬은 영의 인도와 따르는 자로서의 위대한 능력으로 인하여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왕은 암몬을 불러들여 어디에서 그와 같은 힘이 나와서 암몬을 그토록 비상한 사람으로 만드느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봉사함으로써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암몬의 능력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몬은 슬기롭고 또한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었으므로 라모나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힘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면 들어주시겠나이까?... ”

“왕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하겠나이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모두 믿겠나이다.”(앨 18:22~23)

이제 암몬은 정말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얻었으며 왕은 그가 권고하고 복음을 설명할 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라모나이 왕의 식구와 모든 레이맨인들은 암몬, 그의 형제 아론 그리고 다른 모사이야의 아들로 인하여 개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좀더 많은 행동의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따르는 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따라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워리를 생활에 적용시키고, 요셉 스미스의 말씀과 같이, 올바른 원리대로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릴 때 우리는 교회에서 따르는 자란 비록 지도자와 의견이 상반될지라도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도자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배우게 되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신임을 얻게 되며, 더욱 많은 조언과 충고를 구하게 됩니다.

따라야 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 원리에 위배되는 것을 하라고 명하는 지도자를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신의 권능으로써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음성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연차 대회에서 매리온 지'롬니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의 말씀을 듣노라니 거의 사반세기 전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과 함께 하였던 경험이 기억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공무로 집행한 조치에 대한 비난에 관하여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등 뒤로 팔을 돌려 어깨 위에 손을 얹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항상 대관장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일 그가 형제

님께 옳지 않은 일을 하라고 말하여 형제님께서 그것을 행한다면 주님은 형제님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대변인이 절대로 그의 백성을 다른 길로 인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분의 권고를 지금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권고에 충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대회 보고, 1972년 4월호, 111페이지)

훌륭히 따르는 자는 자기의 할 바를 묻고 지도자의 권고와 충고를 기꺼이 듣고 받아들여려고 합니다. 야렛의 동생은 야렛과 주님으로부터 권고를 받았으며, 모사이야의 아들들도 아버지 야렛의 권고를 듣고 이를 행하였습니다.

훌륭히 따르는 자는 자신의 책임을 기꺼이 짊어질 줄 알아야 하고, 지도자가 받아들일 만한 제언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따르는 자는 그의 지도자의 방법을 배우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르는 자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지도자의 필요 사항을 미리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일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르는 자는 자신이 스스로 행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많은 의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따르는 자는 올바른 원리를 이해하여, 그가 행하는 일이 악이 아니라 의를 가져 올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지도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따르는 자로서의 본분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잠재되어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란 훌륭히 따르는 자입니다. 먼저 훌륭히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명령을 받은 대로 일하십시오. 해야 할 바를 묻고 권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책임을 받아들이고, 제언을 하며, 그것을 실천하여 여러분의 자유의지로써 의를 이루십시오. 신뢰나 의로움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갈 줄 알아야 하며, 뛰기 전에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훌륭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사우니아투: 준비하는 장소

브라이언 케이 켈리
편집부장/글, 사진

“우리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 힘
이었습니다.”

우 리들 모두는 직업이나, 목적이나,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우니아투를 일으켜 세워 독립시켜
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에드
카마우오하 형제는 그가 수년 동안 계
속했던 봉사 사업과 수백 명의 생명에
영향을 끼쳤던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우니아투의 마을은 서사모아 우포
우루섬의 아피아에서 동쪽으로 20마
일 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사화
산의 분화구에 자리잡은 마을입니다.
대부분의 이 섬의 도로는 해안과 평행
을 이루고 있었으며 극히 소수의 도로
만이 내륙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사
우니아투 마을은 해안의 대로에서 불
과 4 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
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길 양쪽으
로 무성하게 우거진 숲, 거대한 푸른
터널처럼 보이는 울퉁불퉁하고 꼬불꼬
불한 화산로로 차를 몰고 가노라면 걸
어서 갈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렸
습니다.

사우니아투는 사모아 말로 “준비하
는 장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우니아투를 세운 초기 성도들은 사



모아 교회사에서 이 장소가 중요성을 갖게 되리라는 선견지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준비하여 힘을 기를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했습니다. 1904년, 그들이 사우니아투 마을을 세웠을 때에 물몬이라는 이유로 그 마을에서 추방당하고, 박해를 받았으며, 부당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후에 그들이 사우니아투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사모아의 교회 학교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사우니아투의 주민들과 여러 학교 당국자들은 이와 같은 벽지에서 학교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1921년 사모아 관리들은 이 마을이 존속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와 휴 캐넌 장로가 전세계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세계 일주 여행을 하던 도중 사모아를 방문했습니다. 이 여행에서 맥케이 장로는 사우니아투와 그 주민들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많은 축복 가운데 그는 그들이 풍부한 식량과 의복을 가질 것과 그들의 농사가 풍작이 되며, 그들의 마음과 가정에 화평이 깃들기를 축복했습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6년 5월 366페이지 참조)

1967년 12월에 에드 카마우오하 형제는 이곳의 새로운 교장 선생으로 부임했습니다. 수년간 사우니아투는 학교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었으나 그가 부임한 후부터, 사우니아투의 장래는 또다시 문제시 되었습니다.

“학교의 능률과 질에 관한 행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사모아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가 고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우니아투의 평균 점수는 사모아의 다른 교회 학교의 평균 점수보다 5점이나 낮았습니다. 학력차가 뒤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벽지 학교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므로 수업료조차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사의 교육 열도 낮았습니다.

“나는 학교 문제로 상심하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학교 운영인으로서 나는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우니아투의 전통이 사모아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들이 1921년 맥케이 대관장이 주신 축복

에 따라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을이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에드 카마우오하 형제는 사우니아투의 주민 각 사람이 예언의 말씀대로 생활한다면 그 예언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사우니아투의 학생들을 자급할 수 있게 하고 자존심을 갖게 하며 그 마을이 약속된 축복을 거둘 수 있도록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킬 계획을 세웠을 때 그의 마음은 평정을 유지할 수가 없었으며 폴리네시아인의 강인한 근육에는 힘이 솟구치는 듯하였습니다. 사우니아투의 향상을 위해 그가 세운 계획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몇 명의 교사와 소수의 학생이 이 일을 해나가는 너무나 벅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카마우오하 형제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큰 기계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계를 서서히 돌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 기계의 회전을 가속시켜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라고 카마우오하 형제가 말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학교에서의 학생의 성적과 교사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우니아투에서 남의 도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외부의 도움이나 남의 원조에 너무 의존해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카마우오하 형제는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주께서는 우리에게 두뇌와 양 손을 주셨으나,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도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로가 완성되자마자 사우니아투의 젊은이들은 다른 중대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동시에 절벽을 깎아 내어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고 도로를 고치고, 자연로를 넓히고 농장을 개량하였으며, 맥케이 대관장님의 축복을 기념하는 특별 족장의 집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사모아 마을을 개량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화산으로 생긴 절벽에서 수영장과 아름다운 폭포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드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폭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동안, 카

마우오하 형제는 소년들에게 마을에서 폭포까지 다닐 수 있는 오솔길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통로를 만들었는데, 검사 결과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음을 알고 카마우오하 형제는 그들에게 다시 그것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대로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것이 올바른 방법으로는 진행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번째는 그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높지대는 피했습니다. 완성된 길은 정말 이상적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수업을 마치고 소녀들은 강에서 물통으로 자갈을 운반하여 길에 깔았습니다. 소녀들은 각기 매일 25번 내지 40번씩 운반했습니다. 그것을 완성하는 데는 2개월이 걸렸습니다.

소년들과 소녀들은 산에서 어린 묘목을 가져다가 길 양편에 심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난초와 양치 식물류와 그 밖의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어 길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로사 레인(장미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매 방과후와 토요일마다 학교 농장을 보다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22,000주의 타로 토란과 4,000주의 바나나 나무와 많은 파인애플과 코코아 나무를 재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맥케이 대관장님이 1921년에 그곳에 방문하여 사우니아투를 축복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전형적인 사모아인 마을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특별한 족장의 집을 만들어 그것을 맥케이 기념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집이 세워졌을 때 너무나 웅장하게 보였으므로 청소년들은 숲으로 가서 티크 나무를 잘랐습니다. 통나무를 마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숲에서 좋은 나무를 골라 그것을 잘라야 합니다. 그다음 그것을 잘 다듬어서 트레일러에 싣고 제재소로 운반했습니다. 통나무를 여러 토막으로 잘라 낸 후 민속 공예가들이 거기에 사모아의 전설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통나무를 마련하여 그것

을 새기는 데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처음 몇몇 조각에 드는 비용은 사우니아투 선교사나 사우니아투 주민들 노력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의 헌금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약 20개 조각의 대부분을 지불할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늪지대에 특별한 풀을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늪지대에 목초를 심고 점점 그 면적을 넓혀 갔습니다.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그들은 가축을 사서, 길러 그 가축을 판 돈으로 조각에 드는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조각이 완성되었을 때 카마우오하 형제는 조각사에게 흉상을 조각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가 조각사에게 준 맥케이 대관장님의 사진은 그의 만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카마우오하 형제가 그 흉상을 가지러 갔을 때 그 조각사는 실의에 빠져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에드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제 평생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만 제가 조각하고자 마음먹은 대로 조각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때는 조각에 관한 일이라면 못할 일이 없었는데, 이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조각하고자 하는 대로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보시다시피 이 조각은 당신이 갖다 준 사진과 닮지 않았습니다.”

카마우오하 형제는 그 조각을 그날 저녁에 사우니아투로 가져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맥케이 기념관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이미 준비해 둔 대좌에 그것을 올려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의 생을 사우니아투에서 보낸 사모아의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맥케이 대관장의 흉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나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향하여 ‘웬일이십니까? 그 흉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맥케이 대관장님이 축복을 주실 때 나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흉상은 그가 1921년에 이곳에 왔을 때 바로 그 모습입니다.’

“또 한번은 물몬이 아닌 그 조각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씨, 나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조각은 나의 작품도 아니며, 당신의 작품도 아니며, 오로지 이것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성령은 많은 다른 경우에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많은 노동을 하여 가꾸어 놓은 타로 토란을 훔쳐 갔습니다. 사우니아투의 어떤 사람도 이것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카마우오하 형제는 심히 걱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지시를 간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꿈으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는 꿈에 농장에서 타로 토란을 훔치는 마을 사람 두 명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것을 뽑아내는 것과 뿌리를 따내고 그 잎을 땅속으로 도로 묻어 두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타로 토란 뿌리를 숨겨 둔 곳과 그들이 밤늦게 그것을 도로 가지러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그는 이 두 사람을 그의 사무실로 불러 왜 그들이 타로 토란을 훔쳤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화를 내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대들었습니다.

카마우오하 형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타로 토란을 훔쳤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그들이 행한 행동을 낱말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으며, 나쁜 행동을 한 것을 몹시 후회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위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을 도우셔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을 가질 때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한 작업단을 구성했습니다. 맥케이 기념관의 지붕을 엮는데 13,000패덤(약 7,800척)의 세네트(코코아 껍질로 만든 밧줄)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밧줄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거두러 다녔을 때 아무도 그것을 준비해 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온 섬으로 돌아다

녔지만 겨우 30패덤(약 180척)만 거두었습니다. 나는 크게 실망하여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른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선교 본부에 들러야 했습니다. 그때 관리 선교사 한 명이 ‘카마우오하 형제님, 제가 세네트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 참 잘 됐군요’ 그러나 선교사가 가진 세네트는 우리를 도울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큰 밧줄 밧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나에게 내밀면서 이것은 약 1,300패덤 정도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미국에 돌아가면 사모아 페일(집)을 만들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주께 급히 달려가 내가 한 불평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알 것입니다. 나는 낙심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는 이듬해까지 잘 진척되었습니다. 카마우오하 형제는 사람들이 일이란 완성되기까지는 완전히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도로와 교량과 폭포의 계단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사우니아투의 사람들은 수도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파이프를 설치하여 샘물을 나오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파이프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전에 수 년간 사용되었던 낡은 파이프를 파내어 강에서 씻어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골라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들은 샘에서부터 마을까지 단지 직선으로 가설해야만 겨우 닿을 수 있는 파이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직선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75피트나 되는 용암 지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직선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만큼 파이프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충분한 물을 원한다면 지반을 뚫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모든 일에서 열심히 일했던 팔레오우 이토피라는 거대한 사모아인은 ‘우리가, 이룩

한 일에 비하면 이 조그마한 지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밤에는 등불을 켜 놓고 일했습니다. 팔레오우의 손에는 피가 났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일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공사에서 그와 같이 일했습니다. 도로를 건설할 때도 그는 언제나 짧은 도로를 만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너무 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정이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으므로 결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에드 카마우오하와 팔레오우 이토포와 그의 다른 지도자들로부터 사우니아투의 젊은이들은 가난하고 때때로 남들의 멸시를 받았으나 그들이 주님께 중요한 존재임을 알았으며, 언제나 주님은 그들을 "맨먼저" 도와 주심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사우니아투를 떠나서 어디로 가든지 일을 열심히 하며, 최선을 다한다는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우니아투에서 일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포우오노 라메카 장로는 현재 서사모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우니아투에서 3년간 살았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니는 이외에 농장과 폭포 계단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사우니아투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빛나고, 그의 얼굴은 행복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사우니아투에서 성장했습니다. 카마우오하 형제는 학교에서 나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발전하였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나의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친구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들이 일하는 요령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고 말하며, 그의 이러한 경험은 그들이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티 파우이파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씨는 나에게 일을 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나의 책임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사가 완성될 무렵 사우니아투의 학생들의 성적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심과 자존심을 얻었으며, 국가 고사의 최하의 성적을 3년 후에는 모든 교회 학교 중에서 최고의 성적을

얻었습니다.

포아오와 아타리나 아호우가 사우니아투에서 교사로서 만났을 때는 둘 다 미혼이었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후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 가서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타리나는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공사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훌륭한 어머니와 가족을 가르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공사가 행해진 후에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옳지 않으면 그것을 반복하십시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의 남편 포아오는 지도력을 배웠다고 말했으며, 그는 한 번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먼 곳으로 유학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 보다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일이 무척 어려워 보일 때 여러분이 농담을 하고 미소를 지으면 그 일이 보다 쉬운 일같이 여겨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아오와 아타리나는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서 학업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사우니아투에 있을 동안 희생을 배웠고, 주께서는 그 희생에 대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탁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을 때 우리는 신전 가까이 있는 물웅덩이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때마다 세탁기 사용료로 필요했던 25센트가 있었습니다. 이 돈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을 때는 그 웅덩이에서 돈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라고 포아오는 말했습니다.

포라우 네리아와 그의 아내 레우테는 사우니아투를 축복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숙사 사감이었으며 네리아 자매는 도로를 만들었던 소녀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리아 형제는 사우니아투에 대한 그의 감회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곳을 사랑합니다. 그곳은 내가 1942년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던 곳이며,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사로서 부임해 온 몇 분의 가르침을 받았

으며, 거기서 주님의 일을 돌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그곳을 일구었으며, 그곳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타로 토란과 바나나와 그의 모든 것들이 사모아의 어느 지역에서 자라는 것보다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협동하는 법을 배웠으며 일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나는 감독으로서 봉사했으며, 우리가 일하는 것을 가르치고 먼저 모범을 보일 때 그들은 곧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우니아투의 정신은 그곳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정비 기술을 공부하고 있는 이사마에리 형제는 처음에는 이곳에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얼마 동안 사우니아투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의 가족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의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나의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 나는 그들에게 병자를 위한 기름 축복을 했더니 그들은 곧 나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기 전에 나는 아내와 여러 번 말다툼을 했습니다. 때로는 아내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매우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 한적한 곳에서 생활하니 매우 즐겁습니다. 이곳은 조용하며, 술꾼이나 도둑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우니아투는 맥케이 대관장님이 이곳을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으로 로사 레인이라고 명명하신 그 이름에 가장 알맞은 곳이 되었습니다. 야자나무와 열대 식물 아래 산책하는 젊은이들은 아름다와 보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향상시키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들 중의 몇몇은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우니아투의 교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니아투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지도력 훈련에 관한 좋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네리아 형제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 힘이었습니다."

*

교실 안은 어수선하였다. 바닥에는 종이가 흩어져 있고, 의자들은 쓰러져 있었다. 케빈은 들어가서 전등을 켜고, 칠판에 적힌 글씨의 흔적을 보았으나 읽지는 않았다.

“도움이 될 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그는 교실 구석에 앉아 칠판을 다시 응시했다. “여러분의 정원회—여러분의 책임” 그렇다. 그 말은 그의 새로운 부름에 관한 것이었다. 케빈은 기뻐서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았다. “내가 감독과의 면담을 마치고 이곳에 들어오리라는 것을 틀림없이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거다.” 제3와드 교사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그다지 쉬운 임무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특히 케빈이 감독실을 떠날 때 감독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기 때문이었다. “케빈 형제님, 형제님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서 형제님의 정원회를 강화하십시오. 그래서 연약한 회원이 하나도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케빈은 일어나 교회의 주차장이 똑똑히 바라보이는 창문을 통하여 건너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주차장 맞은 편에는 스티브의 집이 있지... 그는 비활동 회원이거든. 그리고 보니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와 집에 계실 때에만 신권회에 참석하는 집과 마크가 생각나는구먼.

“아름다운 그들은 훌륭한 정원회 회원이거든. 빌도 있지. 그는 할 일을 지명받으면 그 일을 두 번이나 하고 다른 일을 또 지명해 달라고 할 거야. 또한 조지는 내가 만나 본 회원 중에서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형제라고 생각해. 내 머리 속이 마치 대회를 갖는 일요일의 저 주차장처럼 갖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같은데, 어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정원회를 강화할 수 있을까?”

새로 부름받은 교사 정원회 회장의 이러한 생각은 그가 자신의 새 부름에 대해 생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속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인용하여 본부 아론 신권 위원회가 마련한 다음 제언의 일부는 교회의 기본 단위 조직인 정원회에서 자신의 책임을 깊이 생각하는 정원회 회장단과 회원에게 지침이 되고 힘을 북돋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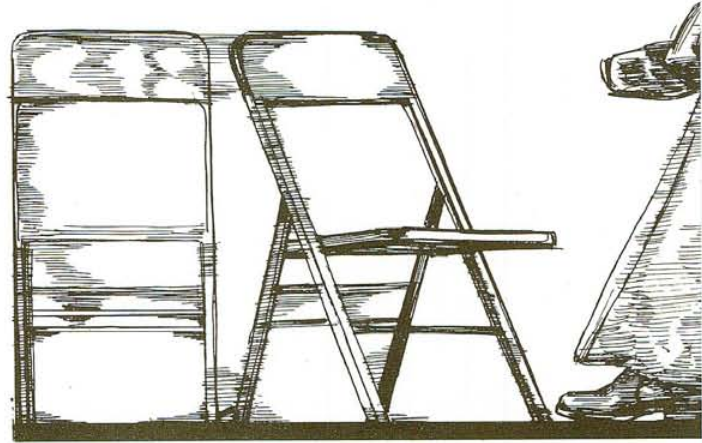
신권 정원회를 강화함

“아론 신권 정원회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를 각성시키는 것은 교회의 다른 모든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6월 대회, 1974년)

“여러분은 정원회의 회원입니다. 정원회의 성패는 바로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정원회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강화될 것입니다. 우

임무, 목표, 정원회



리는 모두 신권 정원회의 합당한 회원이 되기 위해 자신의 신권을 존중할 임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지역 대표 세미나, 1973년 10월 4일)

정원회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정원회를 강화할 수 있는가?

1. 우정 증진 활동에 참여함.

신권 정원회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자신이 속한 정원회의 회원, 특히 비활동 회원이나 새로운 개종자나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제사 정원회 회장 보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6명으로 구성된 우리 정원회에는 이제 비활동 회원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된 이유의 하나가 모든 봉사 계획과 활동에서 우리를 돕도록 그들을 모두 참여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두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원회는 매우 훌륭한 정원회입니다.”

2. 정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함.

정원회 회장단은 정원회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할 책임을 지고 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하여 정원회 지도자와 정원회를 강화할 수 있다.

ㄱ. 계획된 활동 중에 여러분에게 흥미를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계획된 활동에 모두 참여한다.

ㄴ. 정원회 회장단에게 앞으로 가질 활동에 대해



제언한다.

ㄷ. 정원회 회장단으로부터 활동에 관한 지명을 받아들이고 수행한다.

3. 의식과 임무를 합당하고 경건하게 집행함.

“여러분이 자신을 순결하고 순수하게 간직하고, 저속하거나 부도덕하거나 신성하지 않은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와 성찬식에 참석하여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바치신 위대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하여 성찬 전달 지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합당해야 하며, 손은 깨끗해야 하고 마음은 순수해야 하며, 일주 동안 여러분을 합당하지 않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언젠가 성찬식에 참석했을 때 나는 하얀 사쓰를 입고 넥타이를 매었을 뿐 아니라 단정한 몸차림에다 깨끗한 모습으로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하는 소년들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성찬식 동안 경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엔 엘돈 태너, 엔사인, 1975년 5월, 76페이지)

정원회 회장단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정원회를 강화할 수 있는가?

1. 균형이 잡힌 정원회 프로그램을 계획함.

정원회 활동의 전반적인 목적은 각 소년의 인격을 도야시키고 그의 간증을 키워 주는 데 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연차 대회의 신권회에서 다음 목표를 제시하셨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청소년들이 봉사의 정신을

기를 중요한 기회를 끊임없이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너무 많이 맡았기 때문에 비활동 회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간증을 진실로 갖고 있는 청소년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행할 의무를 버려 두고 떠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정원회 관리를 배울 때 정원회의 아론 신권 청소년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아버지로서 준비하는 것이며, 벨기세덱 신권 정원회의 장래의 지도자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경험, 봉사 활동 경험, 연설 경험, 모임을 사회하는 경험, 여성과 건전한 교제를 갖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귀한 젊은 세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경전을 공부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간을 내어 계획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엔사인, 1976년 5월호, 45페이지; 성도의 빛, 1976년 8월호, 43페이지)

정원회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려면 다음의 단순한 지침을 명심해야 한다.

ㄱ. 정원회 고문이 여러분을 돕도록 한다.

ㄴ. 정원회 회장단 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은 주례 모임이다.

ㄷ. 정원회 회장단 모임에서 3개월 동안 가질 활동 계획표를 짠다.

ㄹ.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한다.

(1) 정원회 회원에게 자신의 신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 주는 활동.

(2) 정원회 회원의 관심사에 특히 알맞게 계획된 활동.

(3) 정원회 회원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제공해주는 활동.

ㅁ. 정원회 회원, 정원회 고문, 감독단의 일원이 여러분의 행사 계획표를 보고 제언하도록 한다.

ㅂ. 다른 행사 계획표(와드, 학교, 사회 등)와 대조하여 여러분의 계획을 검토한다.

ㅅ. 첫번째 활동에 대한 계획을 확인한다.

2. 정원회의 각 회원에게 관심을 기울임.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원회 전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로 하여금 그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도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아

니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하게 된 자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실 것입니다.'라고 한 존 테일러 대판장님의 말씀을 상기할 때 나는 걱정스러워집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지역 대표 세미나, 1973년 10월 4일)

어느 제사 정원회 회장 보좌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준다. “저희 제사 정원회 회원은 18명입니다. 우리는 정원회의 모든 회원, 특히 소수의 비활동 회원의 생일과 학교에서 성취한 일 등을 기억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특별한 때에는 정원회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태도는 현저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압니다.”

또한 어느 집사 정원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원회 회원 한 명을 정원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나는 보좌와 함께 19번이나 그 회원과 접촉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있음을 그 사람이 알 때 그 사람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하여 개인에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다.

1. 개인적으로 정원회 회원의 가정을 방문한다.
 2. 정원회 회원에게 특정한 회원과 우정을 증진하도록 지명한다.
 3. 개인의 필요 사항과 관심사에 알맞게 정원회 활동을 계획한다.
 4. 비활동 회원에게 정원회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3. 정원회 고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일함.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 프로그램 곧 감독, 감독단 보좌, 고문, 교사, 소년단 대장, 지도자, 가정 복음 교사, 코우치와 같은 강한 사람들이 진실로 관심을 기울이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매리온 디 행스, 엔사인, 1974년 5월호, 77페이지)

정원회 고문은 정원회가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데 핵심이 되는 사람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하여 여러분을 도와 준다.

1. 주례 정원회 회장단 모임에서 여러분과 만난다.
2. 여러분이 진행할 모임(정원회 회장단 모임, 정원회 모임 등)의 순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계획한다.
3. 여러분과 함께 정원회 활동 행사표를 계획한다.
4. 여러분과 함께 정원회 회원에 대한 우정 증진을 계획한다.
5. 여러분의 동반자와 친구가 된다. *



그들은 청소년이

하지만 저는 슈 브라운에 불과합니다. 이제 겨우 열 다섯 살인걸요. 제가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청소년 지도자가 되도록 신권의 권능으로 부름받았다는 경험을 실감하고 있는 수천 명의 소년과 소녀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소년과 소녀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감독이나 감독단 보좌는 다음과 같이 부름을 줍니다. “우리는 이 부름에 관하여 주님께 간구해 보았습니다. 자매님의 부모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감독으로서(감독단의 일원) 내게 부여된 신권의 권능으로 나는 자매님에게 이 직책을 맡도록 부름을 줍니다. 자매님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똑같은 연령의 소녀 그룹을 관리하고, 이 소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그들을 인도하고, 이 소녀들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영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름의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도록 성별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청소년 지도자를 부르는 일은 역사적 견지에서 볼 때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여져 왔습니다. 주님은 그의 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자를 부르고, 그들이 준비를 갖추도록 도와 주며, 그들을 보내어 새로운 부름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소년이었을 때 예언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보인 태도는 모든 청소년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다. “여호와여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삼상 3:9) 사무엘이



니다

루스 에이치 핑크/글
본부 청녀 회장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도록 주님의 영감을 받았을 때 다윗은 그의 부친의 양떼를 지키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을 때 그는 14세의 소년이었습니다.

경전에는 또한 자기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여성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름답고 현숙한 젊은 유대 여성이었던 에스더는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과 용기와 애국심의 본보기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한 후 그녀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녀의 민족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그녀의 민족을 처형당하지 않도록 구출하기 위해 쓰신 도구였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15세 때 선교사로 부름받아 해외에 섬으로 갔습니다. 교회 청소년 프로그램의 관리 책임자인 매리온 디 행스 장로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때의 나이는 15세였으며, 그는 32회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칠십인 제일 평의회 회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루이사 류러 그린 리차즈 자매는 23세 때 1872년에 창간된 교회 신문인 위민스 익스포넌트지의 편집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신문은 말일성도 여성이 비우호적인 논평과 그릇된 설명을 반박하고 정당하게 주장하며 그들이 믿는 원리와 교리를 옹호하기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수줍고 사교성 없는 젊은 여성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않았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선하심을 믿는 두터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그녀는 에언자로부터의 부름을 받

아들여 유타주에서 최초의 여류 신문인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 말일성도는 에스더와 류러 그린 리차즈 자매가 교훈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생명을 구원하려면 희생을 바쳐야 한다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태즈메이니아에서 온 월계반 회장인 타나는 오늘날 청소년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녀회 본부 회장단의 일원의 방문이 있는 후 그녀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첫 밤을 지난 후 나는 정말 영을 통하여 영감을 받았으며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 전에 그러한 느낌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내가 맡고 있는 월계반의 비활동 자매들이 다시 참석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힘과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참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때 내가 자매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나는 똑같은 느낌을 가졌으며, 나는 성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즉시 소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청녀회 월계반원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달성하고 싶어하는 것과 똑같은 관심사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내가 주님께 보고드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매진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에 의존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내 자신의 간증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세의 멕시코 소녀인 꿀벌반 회장은 자신의 부름에 관한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네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 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교리와 성약 18:15)

말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나와 같은 또래의 모든 소녀로 하여금 나처럼 교회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그 성과가 우리에게 힘을 북돋우어 주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그 성과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레곤주 세일럼의 어느 워드 감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우리 워드의 청소년간에 깊은 사랑이 심어져 있음을 압니다. 나는 그것이 전부 이 훌륭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영향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쁨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그들 중 한 명이 슬퍼할 때 그들은 모두 슬퍼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프로그램의 성과로 현재 우리의 작은 워드에서 일어난 활동 촉진과 개종과 봉사 활동에 관한 많은 경험담을 다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그리들리에서는 열성적인 꿀벌반원이 6명의 소녀를 인도하여 침례를 받도록 도와 주었으며, 이외에 현재 4명이 복음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반원 중 5명의 활동을 촉진시켰습니다. 이같이 활동이 증가되도록 하는 데 공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스테이크 꿀벌반 고문은 “그들은 바로 반 회장단을 훌륭하게 훈련시키는 훌륭한 워드 고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 지도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보람찬 성스러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네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 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

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것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 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5~16)

한 젊은이가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 그 부름에 따른 책임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이 관리인의 직분에는 업무 보고를 할 책임이 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시를 받고, 책임을 이행합니다. 또는 김볼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수행한 일에 대해 보고하고 계속 상담과 지시를 받습니다. 이 업무 보고는 감독단의 일원과 갖는 모임에서 일정한 시일의 간격을 두고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의 직분에 대한 업무 보고는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을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는 주님께 매일 드려야 합니다.

“젊은” 니파이는 외관상으로 불가능한 것같이 여겨지는 임무를 받아들이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우어 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7)

이와 같이 오늘날 청소년에게 부름을 주고, 성별하며, 훈련 자료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헌신적인 지도자들로 하여금 청소년이 자신의 성스러운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게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청소년 지도자에 관한 역사 기록을 그들의 뒤를 따르게 될 자들이 살펴볼 때 그 기록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청소년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영의 지시를 받았으며, 서로 짐을 짊어졌습니다. 진실로 그들은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



호우프만 할머니

엘리자베스 레인 / 글

트래비스 윈 / 그림

행이다. 이제 너는 다 컸으니까 네 도움이 필요하다. 호우프만 할머니가 오랫동안 우리 바로 아래 층에서 살아오셨단다. 그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아파트 내에서는 아주 조용히 걸어 다니고 쿵쿵거리며 뛰어 다니거나 소리를 질러서는 안된다. 헬가는 너무 어려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네가 역시 조용히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알았지.”

언스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어요.”

그래서 언스트는 매사에 조심했다. 그는 발끝으로 다녔고 조용하게 이야기했다. 헬가가 울기 시작할 때는 그의 옆에 앉아서 이야기책을 읽어 주거나 장난감을 갖고 놀도록 주었다. 이따금 그는 호우프만 할머니를 계단에서 마주치곤 했다. 조

학 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언스트는 계피를 넣어 구운 사과파이의 맛있는 냄새와 갓 구워낸 빵냄새가 구미를 동하게 풍겨대는 빵집 앞을 억지로 서둘러 지나쳤다. 몇 발자국만 더 가면 아버지, 어머니, 어린 누이 동생 헬가와 같이 살고 있는 5층짜리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게 된다. 언스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바깥 현관 문을 열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오늘 저녁 반찬은 무얼까 하고 생각했다.

육 개월 전 언스트네 가족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했을 때 어머니는 언스트에게 조용히 타 이르셨다. “언스트야, 아버지 직장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좋은 아파트를 구해서 정말 다

그마한 분이셨는데 머리와 허리가 구부러져서 더욱 조그마하게 보였다. 언스트는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했다. “구텐탁 프라우(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도 “안녕”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례를 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장보러 나가시고 언스트와 헬가만 남아 집을 보고 있었다. 헬가가 인형을 안고 춤을 추며 놀고 있었는데 그만 장난감 자동차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나무 의자의 뾰족한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 헬가는 울기 시작했다. 언스트는 장난감 양이랑, 책이랑, 공 따위를 주어서 달래 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헬가의 이마에는 큼직한 빨간 혹이 생겼고 계속 울어대고 있었다.

잠시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언스트는 뛰어가서 문을 열었다. 호우프만 할머니가 염려스러운 모습으로 서 계

시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밖에 나가신 것을 보았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어린 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아무래도 내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헬가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아이구, 이 불쌍한 것!” 호우프만 할머니는 소리치며 달려와서 헬가를 안았다.

몇 분 뒤에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는 호우프만 할머니가 언스트와 헬가를 양옆에 데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헬가는 머리에 시원하고 축축한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부터 언스트와 헬가는 아파트 내에서 조용조용히 걸어 다녔고 낮은 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제는 단지 어머니 말에 복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친구인 호우프만 할머니께서 쉬는 데 방해가 될까봐 염려해서 그렇게 행동했다. 때때로 할머니는 아이들을 불러 이야기도 들려 주고 자기가 만든 과자를 주기도 했으며 그냥 놀러오라고 초청하기도 했다.

어느 날 언스트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왜 호우프만 할머니가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 드리고 싶어요.

“호우프만 할머니는 슬픈 일생을 살아오셨단다. 앞집에 살고 계시는 케츨러씨가 내게 이





야기해 주던데, 할머니는 오래 전 전쟁통에 남편과 아들을 잃고 그 후로 이렇게 혼자 살고 있다더라. 외로운 할머니시란다.”

언스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시골에서 여기로 이사왔을 때, 할머니와 떨어져야 했기 때문에 난 슬펐어요. 호우프만 할머니를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할머니로 삼으면 어떨까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구나, 애야.”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했다.

그리하여 호우프만 부인은 언스트와 헬가의 할머니가 되었다. 할머니는 웃음을 되찾았고 아이들에게 짙막한 노래도 불러 주셨다. 그렇지만 이따금 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서리는 것을 언스트는 보았으며 그때에는 그도 역시 슬퍼졌다.

호우프만 할머니의 생일 바

로 전부터 언스트는 그들이 그 할머니를 대단히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생일 선물로는 무엇이 가장 좋을까 하고 곰곰히 생각했다. 매일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그는 많은 작은 상점들을 지나다니며 할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찾아 보았지만 마음에 꼭 드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호우프만 할머니의 생일 전날 저녁에 언스트는 어머니를 도와 접시를 씻고 있었는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달려가서 문을 열고 보니 지난 주에 언스트네 가족을 처음으로 방문했던 선교사 켄들 장로와 모튼슨 장로가 서 있었다. 이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 대한 훌륭한 사실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언스트의 아버지는 선교사들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방문해서 다른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했던 것이었다.

그 가족은 선교사와 함께 거실에 자리잡고 앉았다. 선교사 한 분이 개회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 다른 선교사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언스트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 모튼슨 장로는 그때 말일성도 신전 사진을 보여 주면서 설명했다. “여기서 가족은 현세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의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호우프만 할머니가 천국에서

남편과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언스트는 생각했다. “가족 중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스트는 장로에게 물었다. “죽은 사람이 그들의 가족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켄들 장로가 미소를 지었다. “언스트야, 참 좋은 걸 물었구나. 방법이 있고말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신전 사업이 또한 교회의 합당한 회원들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단다.”

말씀은 다시 계속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 보셨으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입가에는 미소가 감돌았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다. 방금 마음속에 떠오른 훌륭한 생각 때문에 언스트는 너무도 기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말씀이 끝났을 때, 아버지는 “다시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이 진리임을 느꼈고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장로들이 떠나갈 때 언스트는 그들 사이로 뛰어들어 손을 붙잡고 그들 귀에 속삭였다. “내일 방과 후에 다시 오셔서 그 복음을 우리 친구 호우프만 할머니께 전해드릴 수 있겠어요? 내일이 할머니 생신인데 할머니께 영원한 생일 선물을 드리고 싶거든요.”

*

공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마틴 제이 굿닉

공기는 여러 종류의 기체로 이루어진 혼합체인데 산소(21%)와 질소(78%)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빛과 다른 가스 즉 탄산가스와 결합하지 않고서는 식물은 성장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인간은 식량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산소가 있어야 호흡을 해서 신선한 피를 공급할 수 있고, 질소는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료를 마련해 준다.

지면에서 300마일 떨어진 상공은 공기가 몹시 희박하지만, 해면 근처의 기압은 일 평방 인치 당 15파운드나 된다.

실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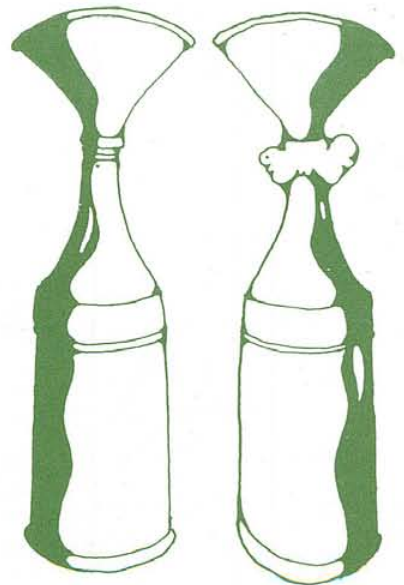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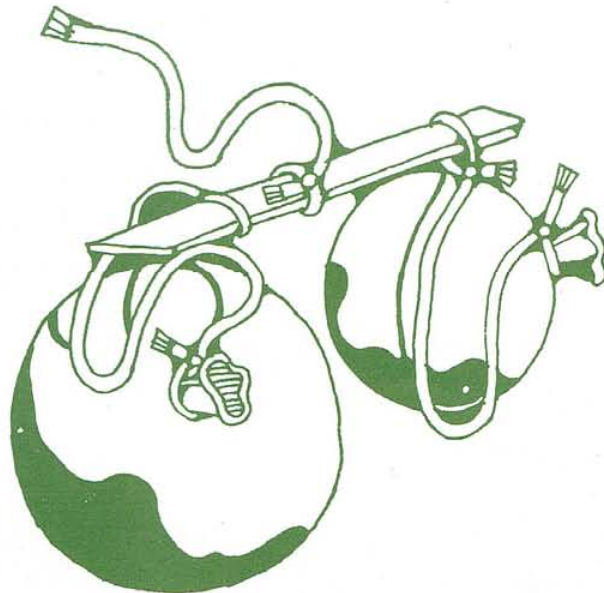
준비물: 풍선 2개, 실, 자 또는 긴 막대기, 핀.

1.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어 같은 크기로 만든 다음 공기가 새지 않도록 끝을 묶는다.
2. 6인치 가량 되는 막대기 양쪽 끝에 풍선을 매단다.
3. 실을 10인치 정도 되도록 잘라서 막대기 복판에 매단다.
4. 막대기를 들어올려 양쪽 풍선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도록 가운데 매단 실을 조정한다.
5. 핀으로 풍선 하나를 터뜨린다. 남아 있는 풍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험 2

준비물: 소다수 병 2개, 깔때기 2개, 공작용 진흙, 물, 연필, 물주전자.

1. 병 하나의 입구에 깔때기를 끼운다.
2. 진흙으로 다른 병 입구를 밀폐한다.
3. 연필로 진흙에다 구멍을 뚫고 깔때기를 박은 다음 주위를 공기가 새지 않도록 진흙을 바른다. 진흙으로 막지 않은 병에 주전자로 물을 채운다.
4. 그 병의 물을 진흙으로 막은 병에 따른다.
왜 병에 물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



너구리 쿤은 밤새 사냥을 마치고 숲속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몇 발자국마다 멈추어 웅크리고 앉아서 털북숭이 가면 뒤에서 반짝거리는 날카롭고 호기심이 많은 두 눈으로 주위를 살펴보곤 했다. 때로는 이 동물을 가면을 쓴 너구리라고도 부르지만 몸집도 작은 곰같고 행동도 곰같기 때문에 인디안들은 작은 곰 형제라는 뜻으로 러쿤이라고 부른다.

쿤은 코를 묘하게 쉴룩거리며 바람에 실려오는 모든 냄새를 주의 깊게 맡아보고 있었다. 이 조그만 약탈자는 다시 멈추어 꼭, 손처럼 생긴 앞발로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올렸다. 그것을 이리 저리 뒤집어 보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 보는 모습이 마치 그의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뉴스를 알아내려는 것과도 같았다. 그러더니 신문을 완전히 다 읽어버린 사람같이 나뭇가지를 팽개치고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북미산 솔송나무 숲에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 막 먼동이 트고 있었다. 잠시 주위를 살펴본 다음 너구

리 쿤은 나무에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다가 나무 등치에 있는 구멍 맞은 편에 멈추어 섰다. 그 구멍에서부터는 그가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여 킁킁 질러대는 날카로운 소리가 몇 마디 들려왔다. 가족들이 모두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더 높이 올라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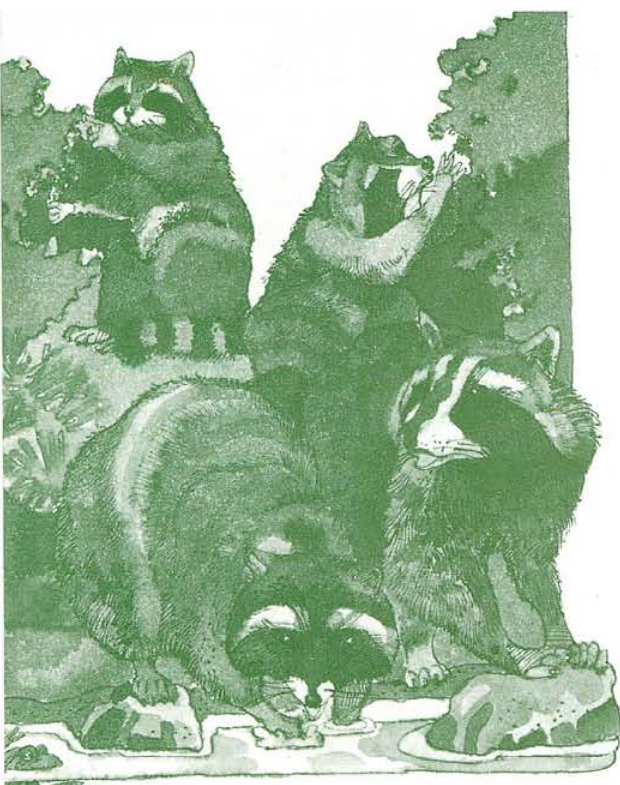
드디어, 작은 가지들이 부채살처럼 퍼져서 복판에 있는 등치를 중심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얽혀있는 곳에 도달했다. 이 주의 깊게 선택한 장소는 낮에 잠자기 위한 곳으로 낮 시간 동안 깊이 잠을 자다가도 가족이 위급한 경우 구하러 뛰어 갈 수 있는 알맞은 위치였다.

그곳에 있으면 자신의 몸은 다른 동물의 눈에 띄이지는 않지만 주위와 밀에 지나다니는 것을 모두 다 살펴볼 수 있었다. 포동포동한 몸을 복판에 있는 나무 등치에 잘 숨기고 있으면 무성한 잎에 가려져 남의 눈에 좀처럼 띄이지 않을 수 있었다. 가까이 다가

가면을 쓴 너구리

머리 티 포링글





가도 털이 얼룩덜룩하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낮이 지나고 황혼이 다시 깃들면, 낮에 돌아다니던 동물들은 쉬러가고 야행성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모험을 하고 싶어 못 견디는 어린 너구리들은 벌써 일어나서 그들의 굴 밖에 현관처럼 뻗어나와 있는 넓직한 나뭇 가지 위에서 씨름을 하며 놀고 있었다.

잠시 후에 너구리 쿤은 꼭대기에 있는 관측소에서 내려왔다. 즉시 엄마 너구리와 두 아기 너구리들도 그를 따라 땅에 내려왔다. 이 4인조는 숲속을 통과해서 나아갔다. 엄마 너구리는 뒤에서 후위를 맡아 보고, 아빠 너구리는 앞에서 길을 인도했다. 아기 너구리들은 이리저리 뛰어 다니면서 도중에 있는 모든 일에 참견했으며,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사 이 없이 만져보았다.

연못에 이르러 너구리들은 갈 길을 멈추고 진흙과 물에 발을 담구고 토닥거리며 장난쳤다. 경솔하게도 개구리 한 마리가 너무 가까이 닥아왔다기 엄마 너구리한테 덤석 잡혔다. 아기들은 바쁘게 돌아다니며 검은 딸기의 잔 가지들을 주어모아 물에 씻고 있었다. 엄마가 그것들을 조사해본 다음 먹을 수 있다고 하자 아기들은 열매를 배가 터지도록 먹어댔다.

낮으막한 소리를 내어 아빠 너구리는 가족을 불러 모으고는 다시 길을 떠나 연못가를 돌아서 이윽고 옥수수 밭에 도착했다. 옥수수는 익었고 부드러웠다. 너구리들은 줄기에서 이삭을 잘라내고 옥수수 발을

마구 짓밟았다. 그들은 이삭에서 껍질을 벗겨내어 연못으로 갖고 가서 몇 번이고 다시 씻는 질서있는 작업을 벌였다.

옥수수에 진흙이 잔뜩 묻은 후에야 그들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에는 킁킁소리를 내면서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그 향연은 옥수수 밭 한 쪽 끝이 수라장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윽고 아빠 너구리 쿤은 떠날 때가 되었다고 암시했다.

조심성 깊고 현명한 이 너구리는 그들이 왔던 길과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빠 너구리는 온 길로 되돌아가는 대신 연못 너머 있는 떡갈 나무 숲으로 가족을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옆으로 뻗어나온 나무 가지들이 현수교 모양을 이루어 숲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진짜 너구리답게 안전한 길을 찾아 나아가면서도 그들의 날카로운 눈은 방심하고 있는 나방이나 딱정벌레를 찾아 뺨짝거렸다. 배가 불룩했지만 그러한 간식을 즐길 여유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었다.

갑자기 아빠 너구리 쿤은 발길을 멈추었다. 그의 빈틈 없는 코는 앞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음을 알려 주고 있었다. 그의 귀는 낮으막하게 웅웅거리는 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구미가 당기는 벌꿀 냄새에 그의 콧구멍은 미칠듯이 쉴룩거렸다.

아기 너구리들은 그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재촉했다. 그들도 역시 벌꿀 냄새를 맡았으며 단 것을 먹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강렬하였기 때문에 그냥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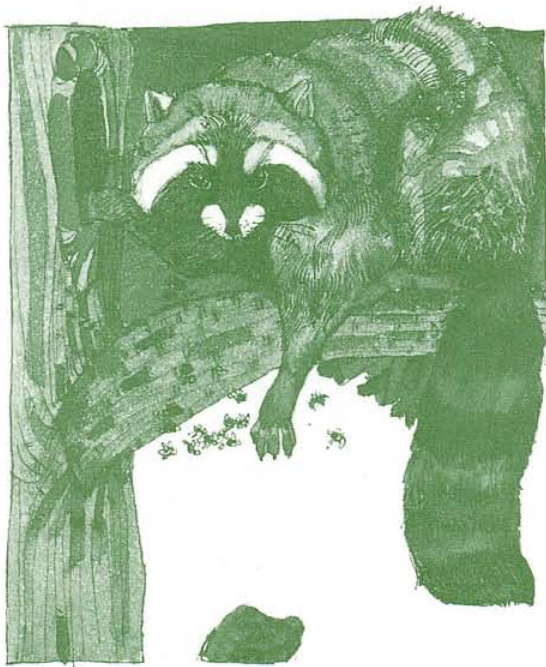


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벌꿀통에 도착하자마자 나뭇가지 저쪽 끝에서부터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너구리의 불구대천의 적 노릇을 하고 있는 빨간 다람쥐 한 마리가 그의 피서지에서 방금 잠을 깨서 침입자가 여전히 밖에 있다고 소리소리 질러 경고를 하고 있었다.

다람쥐는 화가 나서 계속 소리를 뻑뻑 질러 대다가 잠시 그의 적을 무시했다. 아빠 너구리는 나무 구멍속에 앞발을 조심스럽게 집어넣어 벌꿀이 든 벌집을 끄집어 냈다. 재빨리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자 엄마와 아기는 그 맛나는 보물을 다투어 빼앗아 가며 탐식했다.

화가난 벌들은 이 너구리 주위로 떼를 지어 모여



들어서 노출된 눈, 귀, 코에 달려들었으며 그동안 내내 다람쥐는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도 너구리 쿤은 달아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때까지 벌집 두개를 더 찢어낼 수 있었다.

그가 달아날 때 빨간 다람쥐는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고 꾸짖고 옆에서 길길이 날뛰었다. 갑자기, 화가 나서 질러대는 다람쥐 소리 너머로 미친듯이 날뛰며 짖어대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너구리는 이 소리의 주인공을 알고 있었다. 지난해 이 두 마리 개는 너구리를 거의 잡을 뻔 했었다. 그 때는 혼자였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가족을 데리고 있으니 어떻하면 좋담!

잠시 후 너구리를 쫓는 두 마리의 개가 덤불 속에서 튀어나왔다. 목전에 닥친 위험은 조금도 생각 못하고 꿀에만 정신이 빠져 있는 엄마 너구리와 아기 너구리들은 거의 잡힐 지경이었다. 가족을 구해야겠다는 일념에서 아빠 너구리는 자기가 나서서 개를 유혹해 내기로 작정했다.

소리를 지르며 그는 나무 등치를 요란스럽게 기어 내려와 땅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이르렀다. 개들은 이 대담한 너구리를 보고 아연실색했으나 미친듯이 날뛰며 잡으려고 앞발로 나무를 긁어댔다. 그러는 동안 엄마 너구리와 아기 너구리들은 들키지 않고 숲속으로 도망쳤다.

여하튼 그 너구리는 나무 등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에게 잡힐락 말락하는 위치를 유지했다. 그래서 개들은 이번에는 틀림없이 잡을 수 있겠지 하면서 계속 짖어대며 뛰어 올랐다. 그것이 바로 너구리가 바라던 바였다.

개들의 미친듯이 시끄럽게 날뛰는 행동은 벌집을 약탈한 자를 여전히 찾고 있던 벌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였다. 개들이 바로 그 범인이라고 단정한 벌들은 공격을 시작했다.

흥분해서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지르던 개들은 고통과 공포의 비명을 내지르며 집으로 달아났으며 그 뒤를 성난 벌떼들이 따라가고 있었다. 그제야 가면을 쓴 늑대처럼 보이는 아빠 너구리는 땅으로 기어내려와서 덤불을 지나 가족을 불렀다.

다시 모인 가족을 이끌고 아빠 너구리는 숲을 지나서 집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다. *



색칠하기

모로나이 천사로부터
금판을 받는 요셉 스미스





호텐스 에이치 차일드
청녀회 본부 회장단 제1보좌

“나는 감독과의 개인 접견 준비를 어떻게 하나?”

감독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서.” 이 말은 낸시가 감독과의 개인 접견을 끝마치고 현관을 내려올 때 한 말이었다. 매우 가치있는 접견을 가진 게 틀림없었다. 아마 모든 소녀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러한 접견이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감독과 갖는 개인 접견은 성스러운 것이다. 청소년만을 위해 정규 접견 날짜가 계획되어 있다. 성인 회원은 접견을 가지려면 특별히 요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접견이란 여러분이 토론하고 싶어하는 어떤 문제는 물론 감독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에게 영적인 성장을 보고하는 시간이다. 신권의 권능과 권세로 느끼고 인도를 받는 시간은 참으로 특별한 기회가 아닌가!

대부분의 소녀는 자기들이 감독과의 접견을 걱정하고 그 접견에 대해 약간 어색한 느낌을 갖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다. 감독은 여러분의 친구요, 여러분에 대해 알기를 원할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를 원하는 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개인 접견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영적인 준비와 세상적인 준비는 둘다 필요하다. 마음의 상태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행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특별한 종인 감독으로부터 지시와 인도를 받으려고 갈망하게 될 것이다. 접견 전에 부모와 함께 상의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질지도 모를 불안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청녀반 고문과 면담을 가지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교리와 성약 63편 64절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시하도록 기도하고 싶어할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은 접견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을 것

이다.

여러분의 외모는 접견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깨끗하고 맑은 모습은 “너희여 깨끗하라”(교성 38:42)라는 경전의 말씀에 일치한다. 여러분은 주님의 택함받은 대표자를 만나기 위해 자신이 어떤 옷차림을 하고 싶은지 자신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 여러분의 최선의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아마 단정한 복장이라면 여러분에게 가장 이상적인 복장일 것이다. 언제나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한다. 만일 여러분 자신이 감독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였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은 마음의 긴장을 풀고 순조롭게 이야기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준비를 갖추어 접견 장소로 간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너의 목표는 무엇인가?
2.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가 현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
3. 너의 취미는 무엇인가?
4. 매일 기도하는가?
5.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가?
6. 저속하지 않은 말을 쓰는가?
7. 도덕적인 순결에 관한 문제를 갖고 있는가?
8. 가정과 가족에게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가?
9. 주일학교 교사와 신학 연구원 중등부 교사와 청녀반 고문을 좋아하는가?
10. 교회의 각 반에서 현재 배우고 있는 주제를 좋아하는가?
11. 주일학교, 신학 연구원 중등부, 청소년 활동의 밤 및 성찬식 출석 상황은 어떠한가?
12. 학교 생활은 어떠한가?
13.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무엇인가?

14.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이며, 그들은 네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표준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은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여러분이 갖는 비밀이 보장된 가운데 진행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독이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는 여러분에게 워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관하여 건의하고 제언하는 기회를 준다. 여러분은 사전에 이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하거나 감독은 여러분의 친구이며, 여러분을 도와 주고 싶어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이 문제를 갖고 있으면 그에게 그러한 문제에 대해 기탄없이 말하고 그로 하여금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게 한다.

여러분이 필요한 준비를 갖춘다면 여러분이 갖는 개인 접견은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경험이 될 것이다. 잘 준비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주님의 안전한 계획을 신뢰하기 바란다.*



요셉 스미스 그의 다섯 가지 지도자적 자질

윌리엄 이 베렛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에 나는 워싱턴 디 시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뉴욕 타임지를 집어 들어 제1면의 한 작은 난에서 일 년간 미국을 방문하고 막 귀국하려고 하는 한 사학과와 기자와의 대담이 실려 있음을 보았다. 나는 이 사학가의 이름은 잊었지만 거기에 보도된 질문 내용은 기억하고 있다. 기자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당신은 미국에서 1 년간이나 우리의 역사와 국민에 대해서 연구하셨습니다. 미국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학가는 “미국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바로 물론 교회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사학가가 설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는 미국인 중에서 삶의 방법을 외치고 만약 누구든지 따른다면 세계의 모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상을 발표한 유일한 분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와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면 그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변경시킬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인 귀한 사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가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른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견해 즉 회복에 관한 견해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의 교리와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격체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하나님도 인간에게 말도 하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분으로 주장하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시대에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그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분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주었다.

그는 인간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로서 육체를 입고 오기 전에 살았을 뿐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살게 되며 신이 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새로운 지위까지 주었다.

그는 인간도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상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의 유익과 영생을 위한 것이며,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얻기 위함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구원은 보편적인 것이며 모든 인간은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며, 회개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수억의 죽은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지상에서 그들을 위해 구원을 얻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의식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견해 이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견해는 혁신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교리이며, 만일 받아들여지면 모든 인간의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5 가지 지도자의 자질

요셉 스미스는 몇 가지 자질을 가졌는데 그 자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셨다. 만일 우리가 그 자질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위대성이란 손쉽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타고난 '지도력의 자질을 갖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1. 예지

그의 첫번째 자질은 예지이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예언자는 거의 모든 과목에 흥미를 갖고 있었다. 1836년에 그는 교회가 자리잡았던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 그 당시 히브리어 학자였던 세이크서스 교수를 모시고 오는 데 성공하였다. 예언자는 교회 지도자가 히브리어에 정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만약 1주일에 2~3번 정도 밤에 몇 시간 공부한다면 14주 동안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가? 그후 오직 두 학생, 요셉 스미스와 율슨 프렛만이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었다. 예언자는 또한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하여 성경의 여러 구절에 대해 공공연히 토론한 유일한 분인 것 같다.

자주 우리는 어떤 사람의 예지를 그의 생애에서 발표한 견해가 미래에 수년 동안 비판에 잘 견디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판단한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몇 가지 정치적 견해를 오늘날 연구해 보면 재미있다.

그는 연방 은행 제도를 제창했다. 이것은 1917년에야 비로소 미국에서 설립된 준비 은행 제도의 하나였다.

그는 선박이 드나들 수 있게 미시시피강에 갑문을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그의 이러한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으나 오늘날 키어카크 댐과 갑문은 대형 기선이 이 강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으며, 예언자가 주창한 바로 그 지점에 건설되었다.

그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도소 제도를 제의했다. 요셉은 우리가 국법을 범한 자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훌륭한 시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형무소는 배움의 도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이것을 채택한 것은 요셉 스미스가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 이외에 여러 분야에서 그의 견해가 실제적이고 긴 안목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입

증되었음을 암시해 준다.

2. 알고 싶어하는 열망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두번째 자질은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면 누구나 가져야 할 자질인데 그것은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다.

여러분은 신약성서 이야기에서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보내려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였다. 우리는 왜 그와 함께 여행한 일행이 절기가 끝나기 전에 떠났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들이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한 후 그를 찾았으나 그는 그들 중에 없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그가 훌륭한 유대인 율법 선생들 중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12살 된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다.

요셉 스미스도 그러한 자질을 갖고 있었다. 14살 된 그는 참된 교회를 찾았다. 그는 해답을 얻을 때까지 그것을 단념하지 않았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열망은 그의 위대한 자질의 하나였다.

이러한 자질은 그가 공부한 여러 가지 언어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 노력했으며, 가끔 독일어 성경도 공부했으며, 애굽어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한 설교 중에서 여러 외국어를 열거하면서 "만약 내가 더 오래 산다면 나는 이러한 모든 언어에 숙달하게 되도록 하겠읍니다"라고 말했다.

3.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의 알고 싶어하는 열망은 이 세번째 자질이 없었다면 그렇게 중요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진실로 이직적이며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우러러보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에게는 이 세번째 자질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부족하다.

이것은 배움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요셉 스미스는 종종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을 때는 기도로서 주님께 간구했다. 그가 신앙으로 간구할 때 "응답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게 나의 마음에 임하였읍니다. 그때 나는 필기자에게 그것을 받아쓰게 했읍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가 아무리 명석하고 알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없이는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막혀 버린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의 신앙의 위대한 모범은 성경의 창세기를 읽은 그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책을 읽는 자는 누구나 많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성경의 기록에는 아담과 이브는 세 아들 즉 가인, 아벨, 셋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가인은 아벨

을 죽였다. 그래서 가인과 셋이 인류를 영속시켰다. 누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함을 알 것이다.

요셉 스미스는 두터운 신앙으로 주님께 이 모세서의 원래의 기록을 그에게 계시해 줄 것을 기도했다. 원래의 기록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나 요셉은 그에게 그 기록을 계시해 줄 것을 주께 구하였다.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이 계시된 기록이 바로 값진 진주의 모세서이다. 이것은 이미 이 세상에 주어진 성경 기록에 추가된 가장 중요한 기록의 하나이다.

4. 자기 관찰의 힘

요셉이 소유한 네번째 자질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자기 관찰의 힘 즉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관찰하는 힘인 것이다.

매일 아침 우리는 외모, 다시 말해서 머리 모양, 화장, 건강 상태 등을 관찰하기 위해 거울을 들여다 본다. 여러분이 거리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물어보고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은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결점이나 장점을 알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에게 흥미를 갖게 해 주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자질이 있다. 그는 자신의 약점과 장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취하시기 전에는 나는 거칠은 돌에 불과했습니다.”(교회 정사, 5: 423)

우리 중에서 대부분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한다. 우리가 교리와 성약 3편, 6편, 10편, 24편을 읽으면, 우리는 주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주님의 지시대로 충실히 따르지 못하여 책망당한 기사를 읽을 수 있다. 보통 사람은 이러한 책망을 기록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했다.

그가 물문경을 번역할 때 요셉은 자신이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영어를 공부했고, 물문경 제 2판이 나왔을 때 제 1판에서 발견된 문법상의 잘못을 시정하였다. 여러분이 그의 문장상의 세련미를 보기를 원한다면 교리와 성약 121편, 122편, 123편을 읽어보기 바란다. 이 아름다운 문장은 인간의 능력이 쌓아올릴 수 있는 금자탑이 될 것이다.

예언자는 자신에게 많은 약점이 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언자의 기록에 따르면 한번은 어떤 사람이 그의 집에 들어와 노하여 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때 그는 화가 치밀어 그를 발길로 차 집 밖으로 몰아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 일지에 자신의 행동이 예언자다운 행동이 아니었다고 기록했다. 그 후 그는 결코 성을 내지 않았다. 그가 1838~1839년의 지독히 추웠던 겨울 동안 볼도 없고 충분한 음식도 없이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성도들이 쫓겨 나서 어떻게 확실당하였으며, 여자들이 욕을 당했는지에 대한 몸서리치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다음과

같이 간구했다.

“오 하나님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린 큰 휘장이 어디 있나이까?

“언제까지 당신의 손이 가만히 계시며.... 하려 하시나이까?”(교리와 성약 121:1~2)

이것은 불평의 기도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욕과 같지는 아니하니, 네 친구는 욕에게 한 것같이 너와 다투거나 네게 죄를 지우지도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21:10)

주께서는 그에게 인자가 모든 자보다 낮게 그의 몸을 낮추었음을 상기시켜 주셨다. “너는 저보다 크뇨?” 요셉 스미스는 다시 불평하지 않았다.

5. 이웃에 대한 사랑

요셉 스미스의 다섯번째 자질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누구도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는 이 세상에서 위대해질 수 없다. 엠마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 끼를 굶더라도 거리에서 낯선 사람을 초대해서 그 음식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교회 정사, 6:166) 기록에는 그가 개인을 옹호하기 위하여 싸웠던 예가 너무나 많다. 그 자신의 기록에는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는 것을 꾸짖은 예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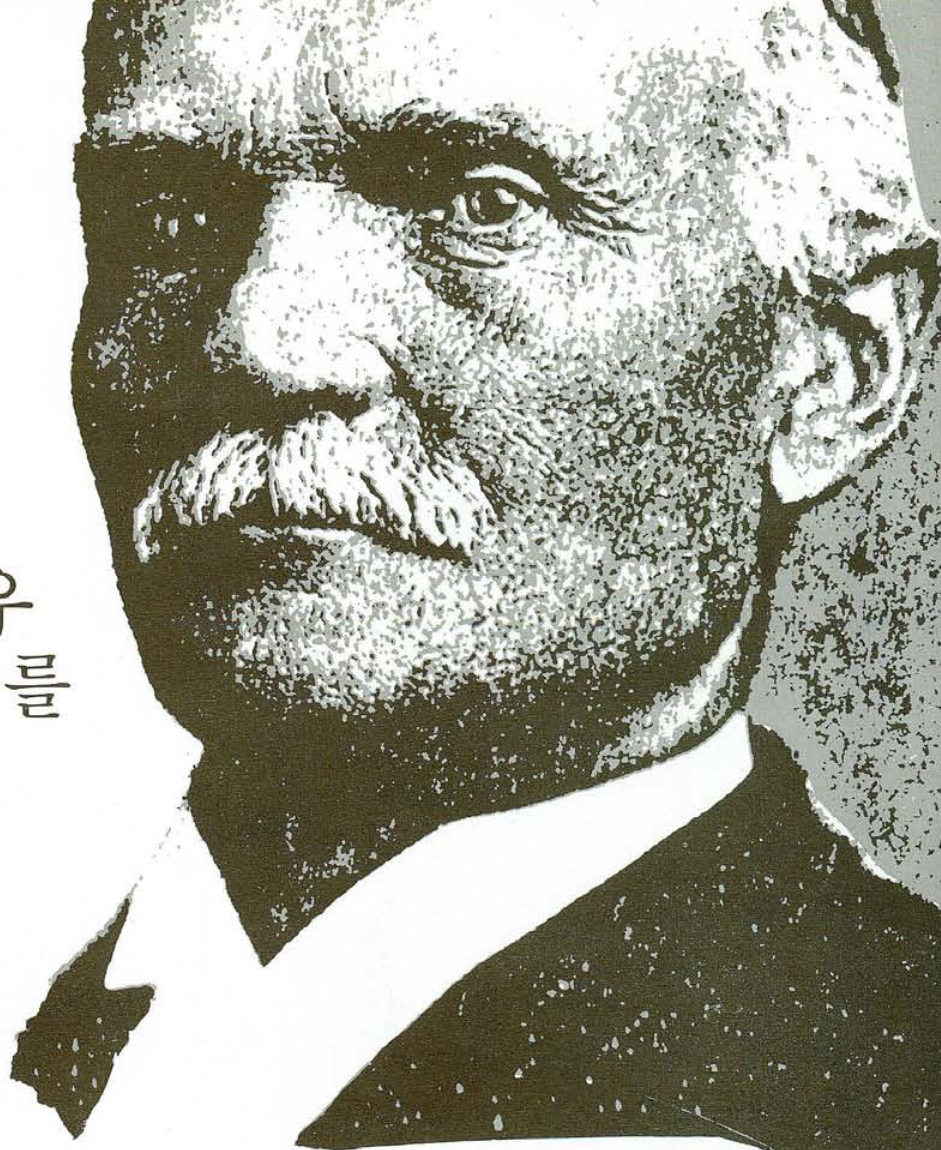
그의 사랑의 가장 훌륭한 증거는 1844년 6월에 있었던 것인데, 그때 주께서는 그에게 그의 적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므로 서부로 가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있을 곳을 찾을 준비를 하라는 계시를 주셨다. 그는 미시시피강을 건넜다. 그때 그의 아내 엠마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성도들은 당신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도망갔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이때 요셉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다. “나의 생명이 친구들에게 가치없는 것이면, 내게도 가치없는 것입니다. 형님(하이람), 되돌아 갑시다.”(교회 역사, 374페이지)

그가 자신을 보안관에게 넘겨 주기 위해 나무에서 카테지로 말을 타고 가던 중 도중에 말을 탄 채 돌더니 나무시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번만 더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는 길에서 스티븐 마컴을 만났는데 그는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털끝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교회 역사, 376페이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가진 5가지의 위대한 자질은 예지, 알고 싶어하는 열망,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기를 관찰하여 자신의 성격을 시정하는 능력,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요셉 스미스는 이와 같은 5가지 자질을 완전히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었다. 이같은 자질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때 우리가 받은 부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1976년 8월 6일, 독일 도르트문트
지역 대회, 신권 모임에서 행한 말씀.



그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나는 독일에 살던 훌륭한 회원이요, 위대한 교육가요, 교육학 박사요, 위엄이 있고 현명한 분이었던 칼 지매저 형제에게 일어난 사소한 일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바로 브리감 영 대학교의 설립자였습니다.

매저 형제는... 위엄이 있고 명망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또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우리가 신권 소유자로서 갖추어야 할 특성이라 생각됩니다.

어느 날 그는 일단의 젊은 선교사와 함께 알프스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보로 높은 산의 정상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행자들이 빙하를 건너 산의 반대편으로 내려가게 안전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표시하기 위해 빙하의 눈 속에 긴 막대기를 꽂아두었습니다.

그들이 정상에 도달했을 때 매저 형제는 젊은 선교사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높은 산봉우리에 멈추어 그들이 따라온 막대기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신권을 보십시오. 저 막대기들은 평범한 낮은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막대기로부터 이탈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 우리는 지도자의 직책을 맡도록 부름받았으며, 신권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낮은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분리되고 독립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그 소유권은 우리에게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와드나 지부나 스테이크에서 주님은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름을 주시고 지도자의 직책을 맡기십니다. 그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계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을 맡은 자들은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나로 하여금 나의 관리 지도자가 발표한 제언에 반대하여 내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권 소유자들이 우리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지지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분이로서 이 지상에서 그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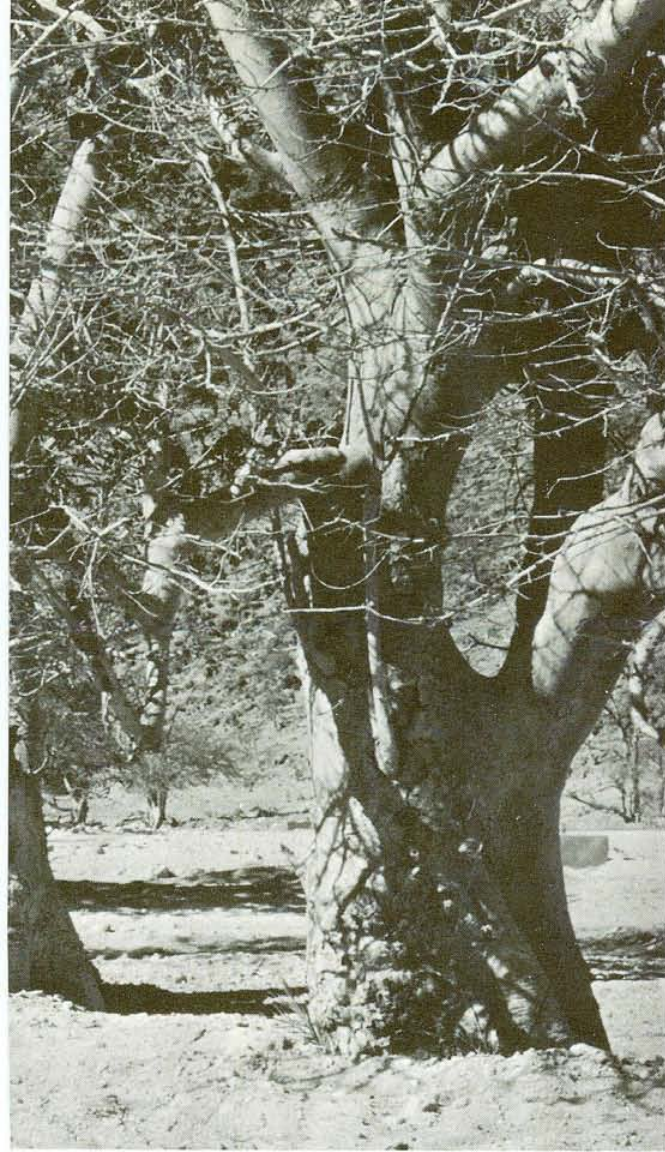
리하이의 발자취를 따라서

제 3 부

린 엠과 호프 에이 힐튼/글
제랄드 더블류 실버/사진

도파의 살랄라로 가는 비자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받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다.(그림 7 참조) 미국 내에서 수개월 전에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정중하게 거절당했던 것이다. 도파는 오만과 예멘 간의 분쟁 지대로서 여행자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우리는 오만의 머스켓에 도착한 후, 공보부장관을 방문했는데 그는 영어에 능통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미국에서 왔는데 우리의 방문 목적은 살랄라에 과연 큰 나무들이 많은지 보기 위해서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대 기록에 따르면 어떤 씨족이 이곳의 나무로 배를 만들어 미대륙으로 항해하여 갔으며, 그 자손이 지금의 아메리카 인디언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는 매우 놀랐다.

“살랄라는 내 고향입니다. 그곳에는 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그는 우리가 머스켓 주재 미 대사관에서부터 소개장을 받아 오면 접전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증명서를 주겠노라고 했다. 우리는 원하는 소개장을 얻었다. 긴장된 군사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 동안만 비행기로 내려갔다가 다음날 돌아와야 했다. 살랄라에서 24시간밖에 체류할 수 없다는 것에 다소 실망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가 머스켓에 도착하기 전날에 반란군의 지휘관이 오만의 설탄에 투항하여 13년간의 교전 상태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만에 도착한 지이틀째 되던 날 공보부 장관은 기꺼이 우리가 전투 지역으로 여행할 수



있는 통행증을 발부해 주었다.

“우리는... 이곳 해변에 이르러 매우 기뻐하였고”라고 니파이는 기록하였다. “과일과 들꿀이 풍성하여 바운티풀이라 이름 붙인 곳에 이르렀나니, 이러한 모든 양식은 우리를 멀하게 하지 않으시려 주께서 준비하신 것이었느니라. 그곳에서 바다를 보았고 이를 이레엔툼이라 하였으니 번역한즉 물이 많다는 뜻이라

“우리는 우리들의 천막을 해변에 쳤으며,” (니일 17:5~6)

니파이는 바운티풀에 도착하여 매우 기뻐하였으나, 우리는 살랄라에 도착하여 매우 기뻐하였다. 우리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조사한 결과, 2,200 킬로미터에 달하는 남해안선에서 나무가 자라기에 충분한 습도

를 유지하고 있는 이 작은 지역이 고대 니파이가 바운티풀이라 이름 붙인 지역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바가 있었다. (그림 10 참조) 우리는 니파이가 그의 형제들에게 이스라엘의 자녀 중 애굽에서 구하여 내신 기적에 관한 구약의 이야기를 들려 주면서 주님께서는 모세의 백성을 구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적을 행하사 약속의 땅으로 바다를 건너 인도해 주시리라는 신앙을 간증했던 해변가를 거닐면서 그 옛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니일 17:23~32, 49~51)

옛 유항길은 모래와 자갈의 평원을 지나 북쪽으로 콰라 산맥을 넘어, 그리고 아래로는 가장 폭이 넓은 곳이 12킬로미터인 달 모양의 살랄라 해안 평야까지 이르고 있다. 콰라 산맥은 아라비아 반도 남해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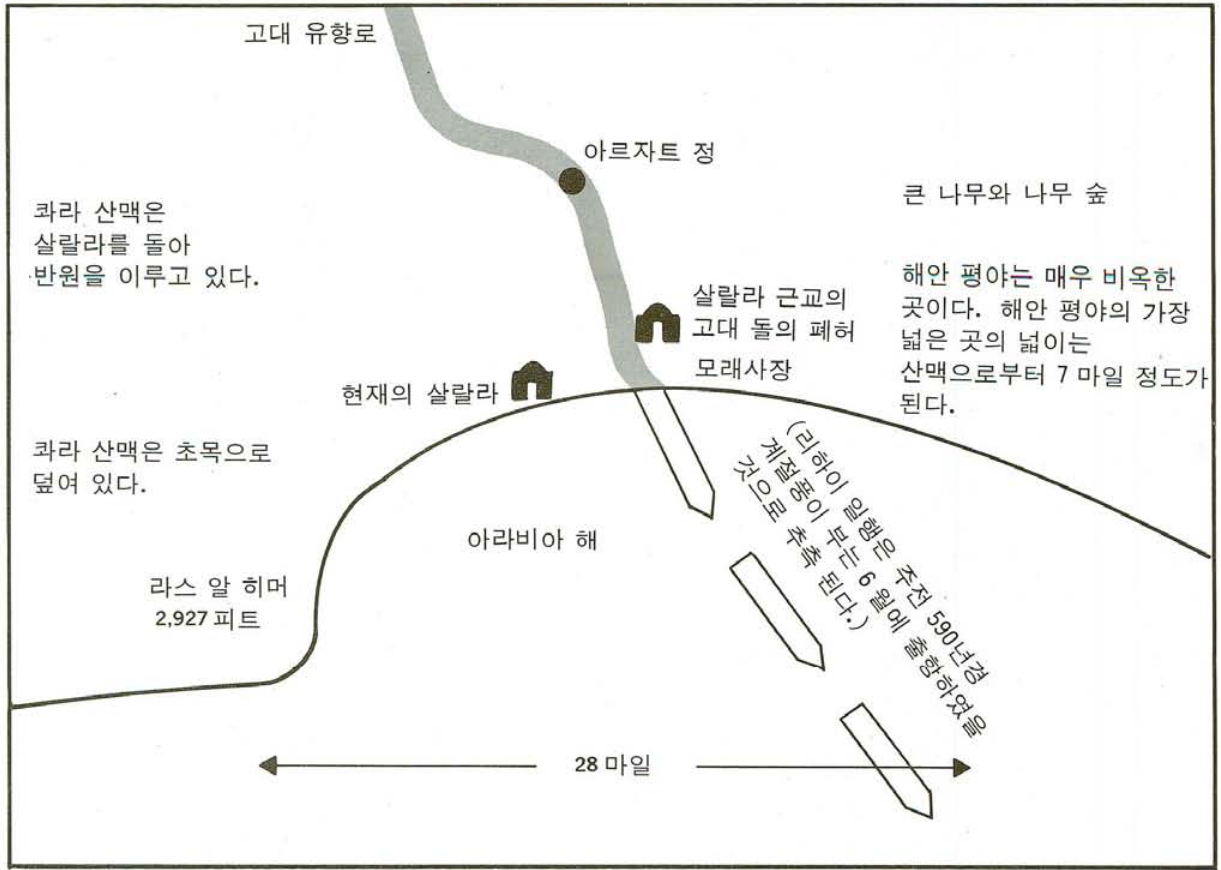


그림 10
살랄라, 오만(바운티풀 추정지)

전체를 통해서 오직 이곳만을 지나는 계절풍에 의하여 채소가 재배되는 이 작은 평야를 둘러싸고 있다.

몇 개의 와디가 이 해안 평야로 흘러 들고 있다. 샘물이 많은 아인 아르자트는 일단의 무리가 식량을 준비하고 배를 만들기 위하여 이삼 년간 머무를 만한 지역으로는 충분한 곳이었다. 리하이가 택하기만 하였다면 샘물로 곡식에 물을 대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니파이가 특별히 “많은 과일”과 “종자”를 식량으로 취하였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그것들을 바운티풀에서 얻었을 것이다. (니일 18:6)

살랄라가 바운티풀이라는 우리의 결론이 정확한 것이라면, 리하이의 무리만이 그곳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곳은 유향목이 자라는 유향길의 끝이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농부, 상인, 여관, 상가가 있었을 것이다. 살랄라가 항구였으므로, 육로 대상 이외에도 선원과 배가 있었을 것이다. 동쪽, 서쪽, 북쪽, 심지어 유대 땅에서 배가 이 조그마한 번잡한 항구에 물러들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남쪽 산등성이가 아닌 과라 산맥

의 북쪽은 넓은 유향목 밭으로 이어져 있다. 실제로 살랄라 해안 평야에는 여러 와디로부터 어디서나 물을 끌 수 있어서 푸른 초목이 울창하였다. 그러나 물이 없다면 이곳도 미국 남서부나 거의 마찬가지로 불모지이다. 산등성은 허리 정도 높이의 풀로 완전히 메워져 있었으며 이집트 무화과가 많이 있었다. 총을 쏘어진 안내자는 우리에게 계절풍이 불어오는 계절에는 계곡이 안개와 비로 싸이게 되어 초목은 거의 열대성 식물처럼 자라게 된다고 말했다. 야생 꽃과 야생 들벌이 언덕에서 상호 간의 공생의 임무를 행한다. 우리는 속이 빈 나무에 아무렇게나 달려 있는 벌집을 볼 수 있었다.

과거 2,000년을 거치는 동안 도파의 기후는 거의 변함이 없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는 페리플러스의 저자로부터 찾을 수 있다. “유향 나라(도파)는 산이 많고 험준한 곳으로 거의 짙은 구름과 안개로 쌓여 있으며, 나무에서 유향을 생산해 내고 있다.”(페르플러스, 33페이지) 우리보다 먼저 탐험한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기후를 발견하였다. 1920년대의 버트램 토마스는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와디”라고 묘사하였

다. 아라비아 페릭스, 뉴욕: 찰즈 스크라이브너즈 선스, 1932, 100페이지) 윌프레드 데진거씨는 “정글 숲...과 언덕 아래로는 거대한 무화과 나무들이 바람에 나무끼는 풀 위로 쪽쪽 뻗어 있어 마치 영국 공원의 참나무를 연상케 하여 준다.”(데진거, 47페이지) 고 묘사하고 있다.

무화과 나무는 비교적 작으며 매우 유연하여 배를 짓는 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화과 나무라고 부르는 것에 약간 당황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 산에 올라보니 그것은 단순한 무화과가 아니라 이집트 무화과 나무로서, 달콤한 실과를 맺는 단단한 나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무의 둘레가 한 아름이 넘는 나무도 있었으며, 대부분이 크기가 15미터 이상 되는 것들이었다. 나무가 매우 단단하고, 바다물에서 탄력이 강하며, 거의 웅이(마디)가 없어서 당시 조선용으로 사용되는 나무였다.

살랄라가 실제로 바운티풀이었다면 니파이가 과일이 풍성하여 바운티풀이라 이름한 것이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물이 닿는 곳에는 생명이 윤택하며, 그곳의 농부의 말을 빌면 연간 알팔파(콩과의 다년생 목초)를 10회 썩이나 생산한다고 한다. 우리는 그곳에서 레몬, 라임, 오렌지, 대추, 바나나, 포도, 살구, 코코넛, 무화과, 참외 등의 많은 과일이 자라는 것을 보았으며, 야생 꽃들이 만발한 것도 보았다. 흰자스민 꽃은 화환처럼 주렁주렁 나무에 달려 미풍에 실려 흩어지는 질은 꽃내음을 만끽할 수 있었다. 소 때는 산등성이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관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는 풀이 1.8미터 이상이나 되었다.

이곳이 바운티풀이라면 이곳에는 니파이의 형들이 그를 “바다 깊숙이 던져 버리려”(니일 17:48)고 위협할 만한 벼랑이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바다 깊숙이 던지려면 모래 사장이 있는 완만한 해변에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동쪽으로는 시야가 닿는 곳까지 계속 해변으로 계속되나, 서쪽으로 살랄라의 모래 해변은 바다 위로 곧바로 올라선 약 30미터 높이의 거대한 벼랑들로 막혀 있었다. 우리는 오르기 쉬운 길로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았는데 그곳에는 대포를 설치하기 위한 요새가 있었다. 발아래에서 거품을 일으키며 도는 물결은 현기증마저 일으키게 하였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아니면 그와 비슷한 근처 어느 곳에서 니파이가 형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놀람기만 하였다.

종자, 과실, 야생 벌꿀, 벼랑, 배 만들기에 적합한 나무 등에 관한 의문은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커다란 문제 하나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

었다. 니파이가 어디에 가서 연장을 만들 광석을 찾았을까? 살랄라를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산을 탐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나, 그 지역의 주민의 말에 의하면 접하고 있는 지역에 철광이 있다고 한다. 니파이 당시에 근처에 아무 것도 없다 하더라도 니파이는 약 10일간 여행하여 자발 알 아크다에서 광석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니파이는 그가 두 개의 돌을 마찰시켜 불을 만들었으며, 가족으로 풀무를 만들어 바람을 넣었다고(니일 17:10~11)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니파이는 당시에 있었던 광산으로 갔기 보다는 주님의 영에 인도되어 그 자신이 광석을 구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그곳 주민들이 철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니파이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도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니파이가 철광업이 번성하고 있었던 아코바로부터 해안선을 따라 여러 해 동안 여행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를 생각하였다. 니파이 당시 철광 작업이 잘 알려진 기술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사야 54장 16절에는 대장쟁이가 숯불을 사용해서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아담의 손자, 두발가인은 이 지구 역사 최초로 기록된 첫번째 금속 세공인이었다.(창 4:22) 물문경에는 여섯 군데나 미대륙의 니파이인들이 철과 강철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니이 5:15; 예 8절; 모 11:3, 8; 이더 7:9, 10:23). 니파이는 틀림없이 이 유용한 기술을 그의 자녀에게 또한 손자들에게 가르쳤을 것이다.

우리는 잠시 동안 니파이가 만들었을 배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환상에 잠기었다. 우리는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면서 장인의 기술이 다음 세대로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엔보에서 한 조선공에게 배 설계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그는 자기의 머리를 가리켰다. 그가 만드는 배의 용적을 견적하고, 용골에 리브(서까래)를 조이고, 리브에 판자를 다는 일 등의 모든 자세한 계획이 지면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것이었다.

지다와 살랄라를 방문하면서 우리는 조선소에서 배 만들 때 2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먼저 용골을 놓고, 다음에 서까래(리브)를 용골에 끼웠다. 판자를 골재에 부착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즉 못을 박는 방법과 “집기”가 있었다. 첫번째 방법에서는 끝이 강철로 되어 있는 수동식 드릴로 합판과 리브에 구멍을 뚫고, 커다란 강철 스파이크의 머리 바로 밑 자루 부분을 기름먹인 대마로 감싸서 이 구멍 사이로 넣고는 못이 제자리에 잘 박히도록 스파이크를 안쪽으로 구부려 놓았다.

“집기” 방법에서는, 판자가 마주치게 되는 곳에 모

두 구멍을 뚫은 다음, 방수 처리가 된 대마 밧줄로 단단히 잡아 맨다. 이와 같은 배 만드는 방법은 예멘과 오만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상당히 고대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못박는 방법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연보와 지다에서 사용되었다.

물론 니파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니일 18:2) 배를 만들었다. 고대의 조선술을 조사해 보면 니파이가 당시의 조선술을 알고 있었던 것이 전혀 이상하다거나 있을 수 없었던 사실이 아님을 곧 알 수 있다. 그는 조선술이 잘 알려져 있는 지역에서 배를 만들었다. 니파이의 배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는 다를지라도 당대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방법, 또는 양식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니파이는 손수 나무를 베어서 낙타를 이용하여 목재를 모래 사장까지 끌고 갔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목재로 다듬어 놓은 나무를 샅을지도 모른다. 목재를 얻은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나 배가 “훌륭하며 놀라운 솜씨로”(니일 18:4) 만들어졌다고만 설명되어 있다.

배에 승선할 즈음의 리하이 일행은 모두 성인 17명과 어린이 32명, 도합 49명 가량이 될 것이라고 추산된다. 이것은 8년 동안 결혼한 7 쌍에서 평균 4명씩의 자녀를 가졌다고 보고, 리하이와 새라이아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이 더 태어났으며(요셉과 야곱), 이스마엘의 두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부터 있었던 자녀(니일 7:6)를 계산하여 나온 결과이다. 물론 이들 가족은 이보다 더 많은 자녀를 두어 약 65명이 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대 가족을 수용하기 위해서 배의 길이는 적어도 18미터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정도 크기의 배를 설계도도 없이 손으로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방문한 조선소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이 배에는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니라 과일, 고기, 꿀, 식량, 종자, 천막, 기타 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재해야만 했다.(니일 18:6) 18미터 길이의 배가 그다지 큰 배는 아니었다. 인도양과 홍해를 항해하는 돛배 중에는 길이가 54미터나 되는 완전히 손으로 만들어진 배도 많이 있다. 니파이 형제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등 난잡한 행동을 하였다는(니일 18:9)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니파이 배의 갑판이 비교적 넓었을 것이다. 배에 리브와 판자만이 있었다면 춤을 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니파이의 배에는 돛과 키 또는 기타 방향을 조종하는 기구가 있었을 것이다. 니파이가 “배를 인도하여”(니일 18:22)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조선공에게 18미터 길이의 배를 만드는 데 며칠 걸리느냐고 물었다. 조선공은 그 조선소에서 일

하는 35명의 조선공이 45 일간 일하면 만들 수 있다고 대답해 주었다. 한 사람이 한다면 1,575일 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니파이에게는 그 일행 중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8명 있었으며 그들의 자녀 특히 미리 결혼했던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자녀는 십대였을 것이므로 그들도 함께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들이 함께 작업했으면 약 197일 걸려서 배를 완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배가 더 컸다면 시간은 더 오래 걸렸을 것이다. 게다가 안식일과 유대 명절에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다른 형제들이 니파이를 돕기 전까지는 니파이 혼자서 일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배를 만드는 데에는 적어도 10 개월 내지 12 개월 걸렸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병, 집안일, 사냥, 곡식 심기, 추수 등등의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언제나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배 만드는 데 든 시간은 1년이 더 넘었을 수도 있다. 또한 니파이는 철을 녹이고 연장을 만들며, 목재를 베고 다듬어서 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2년 이상이 걸렸을 수도 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란 니파이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오랜 동안의 여행을 무사히 항해할 수 있는 배를 만들었다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그의 민족은 솔로몬 시대에 사공의 경험을 가졌다. 그리고 두로의 히람은 노련한 사공을 솔로몬에게 주었다.(왕상 9:26~27) 사사기 5장 17절은 단족과 아셀족의 해상 경험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해안을 페니키아인과 필리스타인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해상 경험이 위축을 받았을 것이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솔로몬 시대로부터 70년 이후에 아코바에서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려 하였으나 취항하기도 전에 배가 파손되었다.(대하 20:35~36, 왕상 22:48~49) 따라서 히브리인들의 바다에 대한 지식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살랄라에 체류하는 동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름철에 생명의 기운을 가져다 주는 습기로 콰라 산맥을 메우는 계절풍은 살랄라에 교역로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는 사실이었다. 운송 기록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10월부터 5월까지 무역풍이 북동에서 불어 오며, 6월부터 9월까지는 남서에서 불어 온다.(그림 11 참조)

리하이 시대로부터 수세기 전에도 아라비아 남해안을 따라 배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아라비아인들이 수백 킬로미터의 해안선을 탐험하였다는 것은 논박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상, 망망 대해에 배를 띄운 첫번째 사람은 주후 1세기, 로마의 항해사, 히팔러스였는데 그는 아랍에서 불어오는 계절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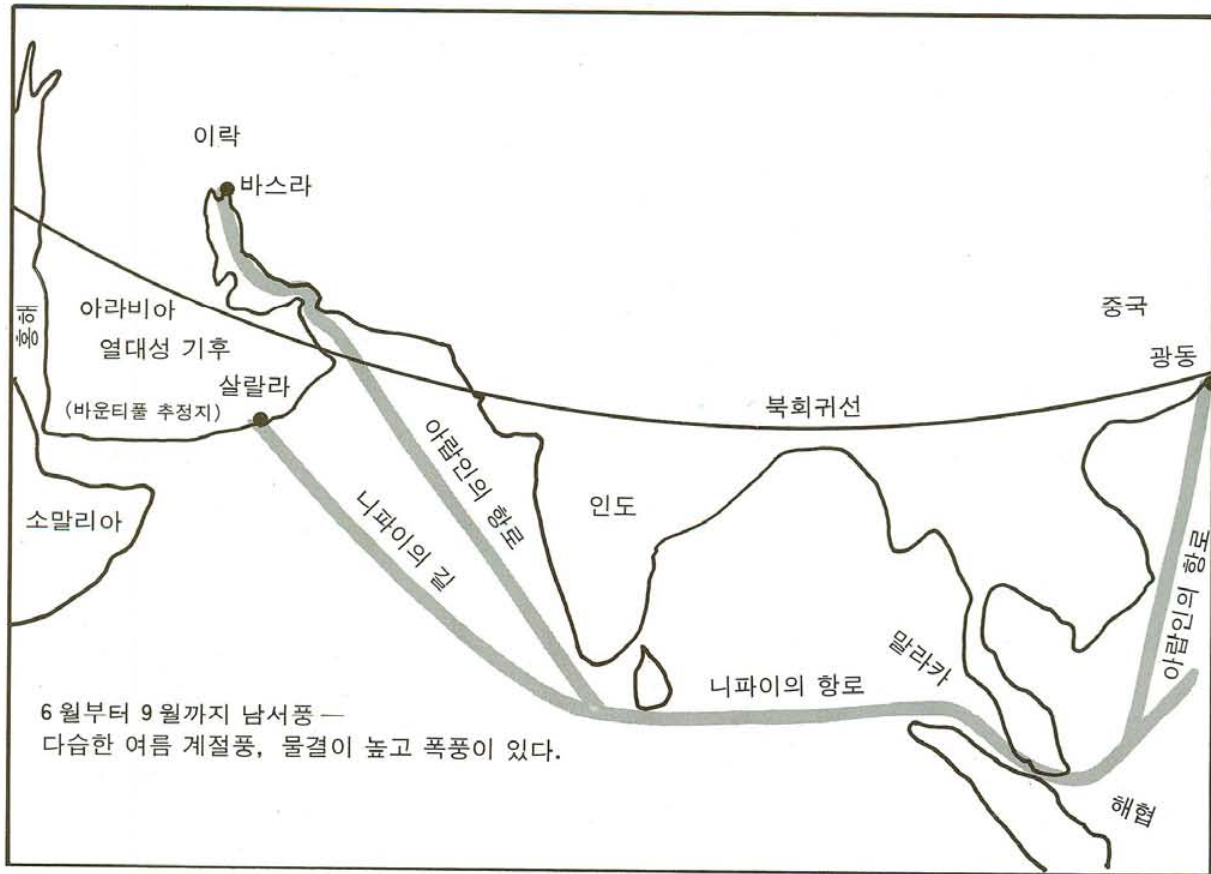


그림 11 고대 아랍인의 항로와 니파이가 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항로

계절풍 (주후 8세기, 칼리프 모서가 지휘하는 아랍의 돛선이 계절풍을 타고 이라크의 바스라에서 출항하여 인도해를 지나 말라카 해협을 거쳐 중국의 광둥까지 항해하는 데에 120일이 걸렸다. 그 그들은 편서풍이 부는 6월에 출항하였다. 니파이 일행의 미대륙까지의 여행은 거리상으로 바스라-광둥 여행의 세 배가 된다. 따라서 바운티풀부터 미대륙까지의 여행은 1년 이상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홍해와 인도 사이의 공해를 지르는 새로운 무역로를 열었다. (“지리:로마인” 엔사이클로피디어 브리태니커, 1971, 10:146) “이 발견은 물의를 일으킨 대 발견이었다. 곧 사람들은 아라비아 연안을 따라 내려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 호드로무트를 옆으로 끼고 인도양을 가로지르다가 홍해로 올라가거나 동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해상 여행을 떠났다.” (“유령선,” 26페이지. 원색의 오만, 영국: 공보 관광성, 오만의 설타네이트, 1974, iv 페이지)

주후 6세기 경, 아랍의 기업가들은 아라비아 반도 각처로부터 중국을 향하여 출항시켰다. 아랍의 배들은 계절풍을 타고 인도의 말라베르 해안으로, 여기서 다시 매마침 붙어오는 여름 계절풍(6월에서 9월)을 만나면 실론을 거치거나 때로는 위험을 가져

다 주는 벵골만을 거쳐 니코바르 제도를 지나고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여 남지나해로 항해하게 되었다. (그림 11 참조) 여기에서 그들은 최대한의 속력을 내어 항해하면 중국의 주요 무역항인 광둥까지 30일 만에 항해할 수 있었다.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중국까지 곧장 항해하면 약 120일이 걸렸으며, 가는 도중에 항구에 정박하면서 항해하면 약 6개월이 걸렸다. (낸시 징킨스, “중국 무역” 아람코 월드 매가진, 1975년, 7~8월호, 26:24, 26~27)

일단 돛배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면 때때로 완전히 역풍을 만나 태평양 쪽으로 밀리기도 하는데, 이곳을 “중국인들은 부주의한 항해사를 망각의 세계로 빨아들이는 대양의 배수구로 믿고 있었다.” (“중국 무역,” 27페이지)

이러한 기록은 모두 리하이 일행이 아라비아를 떠

난 지 적어도 5 백년 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연안 해운업과 몬슨 계절풍은 니파이가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5 세기 이후에나 세상 사람들이 다시 추적할 수 있었던 길을 항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된다. 5 세기 후에 항해한 선원들이 아라비아로부터 중국까지 120일간 걸쳐 항해하였다면, 아라비아로부터 중국까지 거리의 세 배가 되는 미대륙까지 니파이가 항해하는 데에는 1년 내지 15개월이 걸렸을 것이다. 이 항해는 신앙과 용기의 위대한 성약이며, 니파이의 배의 위대한 업적이었다.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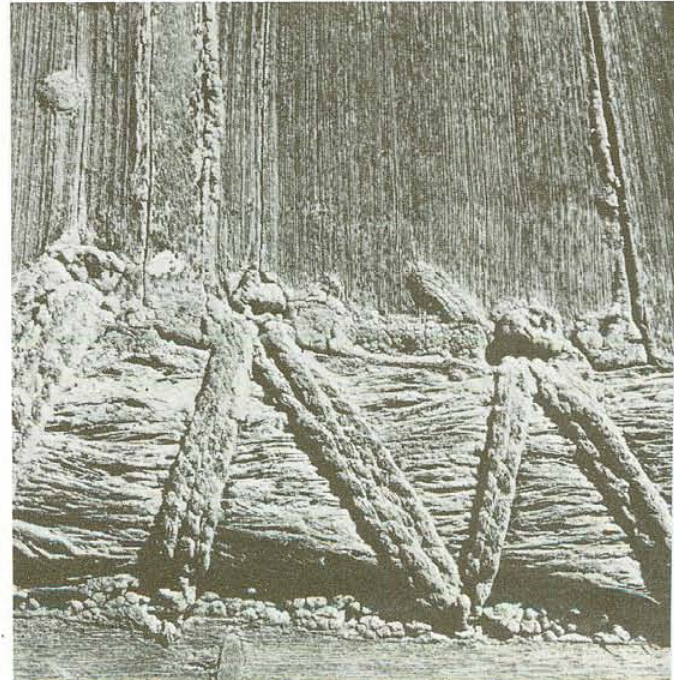
살랄라 연안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운티 풀까지의 리하이 일행의 광야 여행이 일단락된 것을 발견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리하이가 남긴 기록에서 추호의 모순된 점이나 모호한 점을 발견하지 못

하였다. 지리와 역사에 관한 참고 서적에서도 고대 예언자의 기록과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니파이의 기록에 대한 확증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실로 그 당시 그 곳에 있어서 그 여행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던 자라면 2,600년 후에 우리가 보았던 것과 일치되는 그러한 기록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상의 모든 것이 가설적이고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바를 다음에 요약하여 결론을 맺기로 하겠다.

1. 주전 600년 경 리하이 일행이 여행한 아라비아 반도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광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물이 귀한 땅에서 불안정된 관계를 타개해 나가야 했던 곳이었다.

2. 적어도 주전 1,500년부터 아라비아해 연안의 오만의 살랄라에서 생산되는 유황은 고대 여러 나라에서 매우 요긴하게 쓰였던 물품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무역로가 확립되었었다. 끊임없는 사람, 낙타, 소식, 부의 왕래는 아라비아 반도를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막았다.

3. 수많은 사람들이 리하이의 여행로와 거의 같은 길로 살랄라까지 여행하였다. 고대 문서와 그것보다는 이해가 덜 가는 상형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경험, 그들의 힘으로 판 우물, 잘 전해 내려오는 전설 등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여행이 쉬운 여행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리하이의 일행이 성공적으로 여행을 마치는 데까지에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필수적인 요소였다.

4. 우리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와디 엘 아팔이 레뮤엘 골짜기이며, 오만의 살랄라가 바운티풀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해 주는 타당한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생각한다.

5. 리하이 시대 이후로 그 지역의 지형과 기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6. 리하이는 아라비아를 여행할 때 천막 생활과 물, 식량, 교통 수단을 찾는 등 아라비아 유목민의 생활 태도를 따랐다.

7. 남북 아메리카 인디언의 예술 중에는 아라비아의 셈 족의 그것에 기원을 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다. 아니면 두 민족의 문화가 동일한 다른 문화로부터 파생될 것일 수도 있다.

8. 니파이는 남쪽으로 여행하면서 강철 제련술과 조선술을 배우게 되었을 것이다.

9. 아직도 아랍의 기록과 전설을 찾아 보면 말일성도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전보다도 더욱더 물문경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여행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요셉 스미스의 위대한 업적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더욱 발견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살랄라 만 서쪽 끝에서 바다가 보이는 절벽, 이곳에서 니파이의 형들이 니파이를 "바다 깊숙이"(니일 17:48) 던져 버리려 하였을 것이다. 또한 리하이 일행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배를 띄운 곳도 이곳일 것이다.



34. 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¹⁴적도다. 택함을 받지 못함은 무슨 연고뇨?

35.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갈구함이며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였음이니,

36.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¹⁵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

37. 이 권능은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이니, 이 또한 사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과 헛된 야망을 채우며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위는 아멘이니라.

38. 보라, 저는 깨닫기전에 홀로 있게 되어 가시를 걷어차며 성도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도다.

39. 우리는 슬픈 경험을 통하여 이 사실을 배웠나니, 곧 거의 모든 사람은 사소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생각하자 마자 ¹⁶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천성과

기질이 있도다.

40. 이리므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¹⁷적도다.

41.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은화함과 은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42.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43.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즉시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후에는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저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44. 그리하여 저로 네 성실함이 죽음의 사슬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

45. 모든 사람에게나 신앙의 권속에게 향한 너희 사랑을 가슴에 가득하게 하라.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

46.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게로 흘러 들어가리라.

